

# 소학생

★ 54호 ★



# 봄 노래

노래동무회악보

尹 石 重 謠  
尹 克 純 曲

가 만 - 히 커 대 고 들 어 보 면  
겨 으 - 새 캄 자 언 물 래 방 아

얼 음 - 장 밀 으 로 흐 르 는 물 -  
기 지 - 게 키 으 면 서 다 - 시 도 - 세

봄 - 이 온 다 세 봄 이 - 외 요  
봄 - 이 온 다 세 봄 이 - 외 요

얼 - 음 장 밀 - - 으 로  
물 - 래 방 아 물 - - 리 미

봄 봄 이 이 - 와 - - 요  
봄 봄 이 이 - 와 - - 요



[그림·정 현웅]

차례

장소·장.....박순봉(4)  
 장소·세살길.....김승우(11)  
 문화·김정자 조계현·최광현(4)  
 문화·계와 현상기.....김 영(39)  
 소설·죽마왕 혁명.....목우성(19)  
 소설·소년 삼악사.....박재현(33)

소설노예.....윤석영(2)  
 사극사 이야기·파코파·종길(8)  
 소설을 보실.....김재혁(11)  
 소수민족의 신화적사 회 문(14)  
 문학잡지 구성.....지말수(27)  
 문학잡지 구성.....주요성(39)

수필 세기·수필 나라 수필  
 정양 구성.....김재성(20)  
 소설 세기·문학잡지·박순봉(22)  
 수필잡지·문학잡지·시문 남재경(24)

○여덟의 세 소설.....(40)  
 ○그림 책.....(29)  
 ○수필 잡지 조계·시문 문예(31)  
 ○소학잡지 국문잡.....(21)  
 ○경의·이력.....(43)

해독자 삼타기 문재 (25)

만화·수필기.....지영순(11)  
 만화·과학 문부.....김우희(32)  
 이진 할 길상.....(14)  
 과학 경남.....(20)  
 순수문 문예.....(25)  
 철학 박사.....(29)  
 만화 박사.....(39)  
 예술기.....(41)  
 소설잡지 부라부·김달호 나시(42)

☆그림 그리실 분☆  
 정 현승·김 의환·조 영희  
 김 기경·이 수성·김 용환  
 김강.....김 기창

# 소학생

★ 2 월 차 ★



조 영희·그림



# 헨젤 과 그레텔

조 풍 연

옛날, 오랜 옛날, 커다란 숲이 있는 근처에 한 가난한 나뭇꾼이 아내와 그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의 어머니는 죽고, 지금 아내는 두번째 맞아 들인 아내였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작대 아이가 헨젤이고,

저집 아이가 그레텔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나뭇꾼은 보통 때도 간신히 작구들을 짊어 갈피 오던 터인데, 어느 때 이 나라에 무서운 가물이 와서 곡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 온 나라가 주리게 되니, 이제

는 작구가 날마다 떠돌 팔을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자리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에 모았으나 잠은 오지 않고 나오느니 잠을 못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중다 못다

## 동요 창박은 중

창 바깥엔 흰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데,

빨-간 창문에  
엷마 그림자 비쳤다.

빨-간 창문에  
아기 그림자 비쳤다.

밤 한톨 구어서 주먹는게지,  
대추 한오름 주먹는게지.

밤 한톨 구어달라 조르는게지  
대추 한오름 조르는게지.

사복사복 눈길 위에  
강아지 찬마러 지나가는데,

(그림·김 의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오,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갈지 판단 받으. 첫째 내 복구명의 병을 움직이 없는데 저 어떤 자식들을 무엇으로 먹여 살리랴 말인가?"

이 때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오, 좋은 수가 있수. 내일 아침 일찍이 아이들을 숲속 깊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물을 퍼수고 몇 판 조각씩 주르든 말요, 일 하여 가는 식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올시다. 그러면 집에 오는 것을 모르니 다시 돌아 오지 못할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니겠소?"

"네이 어오, 그런 일을 차마 어떻게 판단 받으. 아이들을 숲 속에 데리고 오다니, 그런 노무가 못할 노릇이야. 짐승에게 물려 가라는 말과 마찬가지지."

라고 나뭇꾼은 말했습니다.

"그러나자 당신은 딱하단 말지요. 아아니 그럼 우머클 벗이 피다 굶어 죽자는 말이시우 덕을 것을 살기 말고 어서 무덤을 파구려 흥!"

라고 아내는 화를 떨쳐 내었습니다.

"근제,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짓을 생각이 나면 어쩌려." 마음 속으로는 저 시리하면서 나뭇꾼은 하는 수 없이 아내 말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제모가 아버지에게 말한 이야기를 모조리 물어 보았습니다. 물론 그레텔은 너무나 무섭고 슬피지 슬피지 오마에지,

"오빠, 언젠 우머는 콧딱 죽었구려."

라고 불렀더니, 펠젤이, "가만 있거라 그레텔아, 오빠가 아무 일 없도록 할라니 우지 마라."

하고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잔 뒤에 펠젤은 자리에 서 무서서 일어나, 옷저고리를 입고 심땃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좋은 달이 환하게 비치어서 집 앞과 팔려 있는 회고 작은 자갈이 마치 은몬 외나 무덤 곳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디다. 펠젤은 허미를 끌려다니, 호주머니 속에 그 작은 물건을 찰 수 있는 대크 많이 집어 넣고는 또다지 밖으로 뛰어 와서 그레텔에게 말했습니다.

"자아 아무 걱정 말고 자거라. 우머클은 하느님이 모호하싯단다."

그러고는 펠젤은 천천스럽게 자리에 누어 자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희 맑기 전, 어둑

침했을 무렵부터 먼저 제모는 아이들을 깨며 왔습디다. 제모는 두 아이에게 명을 관조시켜 주고,

"이것은 너희들의 잠집방이다. 그리니자 짐집 때까지 먹이시는 안되. 요것 뿐이니까, 알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펠젤은 호주머니 속에 자갈을 잔뜩 넣었으니까, 명은 그레텔이 앞치마 속에 받아 넣었습니다. 이따하여 빛이 서는 숲을 향하여 떠났습디다.

조금 갔을 때에 펠젤은 서서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조금 가서 또 돌아보았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똑 같은 것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상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펠젤아, 년 짝 모구 있는 거냐? 왜 가다가 서구하니? 정실 자며 어서 마라와."

"아무 짓두 아니에요, 아버



지. 난 지붕 위에 있는 고양이에게 팔 있으라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모가,

“넌 무슨 찢쳐 갈은 소릴 하니? 그건 고양이한테 아니냐. 글썽에 해가 비칠게 아니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고양이를 보고 있던 것이 아니고, 있을 때마다 호루라기에서 뿜어 나오는 찢쳐 갈 모퉁이 모퉁이해다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직구가 숲 속 깊어 들어 왔을 때, 아버지가,

“차아 너희들은 장작을 굽어 모아 오너라. 아버지가 굽지 않게 불을 켜둘테니.”

라고 말했으므로, 헬렌과 그레델들이 지는 작은 나무 가지들 아래 다발 안아다가 쌓았습니다. 아버지는 어저다가 불을 지켰습니다. 문밖에서 사냥 아들이 들을 때에 제모가 말하였습니다.

“차아 너희들은 불 옆에 앉아서 쉬고 있거라. 우리는 나무를 태고 있을 테니까. 그까 끝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올테야. 알겠나?”

헬렌과 그레델은 불을 켜고 있다가 오정때를 되는 것을 기다려 빵을 먹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나무를 썬어내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들어서는 부모가 그 근처에 있는 거요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무를

썬는 모기 소리가 아니고, 짐작은 고목에 일기신기 열크리웠던 나무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남매는 너무 오래 앉아만 있으니까 고단하고 졸음이 와서 기어이 잠이 들어 타렸습니다.

눈을 떠 보니까 벌레 밤이 있었습니다. 그레델은 눈발이 갈성갈성 하면서,

“이불 어저면 좋우? 어떻게 살을 타라, 나가?” 하였습니다. 헬렌은 동생을 달래며,

“조금만 기다려 봐라. 달아 뜨면 길을 알 수가 있단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윽고 정말 갈은 달이 저쪽에서 밝은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헬렌은 동생의 손을 이끌고, 아까 새벽에 건 모퉁이마다 뿌렸던 자갈들을 찾았습니다. 들은 새 온전처럼 반짝이며 두 남매에게 길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불을 타라 자꾸만 자꾸만 걸었습니다. 밤새도록 걸으니까 거칠 달이 걸 무명개, 짐까지 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남매는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아 소리를 듣고 제모가 문을 연 즉 헬렌과 그레델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이그 참 속상대라. 어떻게 인제까지 문지 잠을 자고 있으려면 짐에는 뭘러 왔너?”

하고 사냥 구경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이를 두고

은 것이 알난대로 마을에 언짢아 다닐 때에 남매가 무사히 돌아 올 것을 보고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그런지 얼마 뒤에 또다시 이 나라에 걸오나 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헬렌과 그레델은 어느날 밤, 제모가 자러 숙에서,

“또 무슨 것이 없구려, 인제 빵이 팔 모락 한덩 없으니 꼭 죽기 알았지 귀찮소. 우선 저 미판을 두 번 다시 돌아 오게 못하게 할수만 곳으로 데리다가 파리고 을시다. 이 함대는 수미 복습을 모른대 나날 모기가 없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말을 붙는 것이 들기 게도되지, “그럴 지 아니라 남아 있는 땅을 아이들과 벗이서 나눠 먹고 남시다. 나중에야 어렸던 잔여.”

하였으나, 제모는 아버지 말을 듣기는커녕 모기가 들을 내고 가질 육질을 피하였습니다.

또 아버지로 말하건 처음에 제모 말이 좋았던 터이니 깨 이별이라고 듣기 않는다는 것도 여색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역시 눈을 뜨고 있어서 이 얘기를 듣고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든 뒤에 헬렌은 또 일어나서 천과 같이 자갈을 훑으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제모가 땅판을 걸으므로 잠든 뒤였으므로 밖으로 나갈 수

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렐렐은 어떤 동물을 달래면서,

"술기마루 그레델아, 아무 걱정 말고 자거라. 하느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란다."

이튿날 아침 제모가 와서 남매를 가리에서 끌어 내고, 집보다도 더 커운 땅 조각을 주었습니다. 이빈에도 숲 속으로 데리고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렐렐은 호수에서 죽어서 짙은 조공지 떨어지는 모퉁이마다 서서 떨어뜨렸습니다. 이빈에도 하피지는 이상하게 여기,

"렐렐아, 넌 어디 그렇게 어울어짐과느냐? 학회숙회 전자."

한쪽, 렐렐은,

"저 비둘기를 보고 싶답니다. 비둘기가 나머지 할 거거라 하는 것 같아요."

"그제 그제 비둘기 비둘기로 되니? 댁님이 굳꼭대 비둘기 그렇게 되는 거가!" 라고 제모가 말합니다.

그래도 렐렐은 아무 걱정도 땅 조각을 모퉁이마다 떨어뜨리고 걸어 갔습니다.

두 남매는 라 린도 가 분적이 없는 깊은 숲 속으로 걸려 갔습니다. 거기서도 조한 물을 많이 지렸습니다.

"너희들은 물과 말고 거기 물 있거라. 따뜻하니 낮음을 자도 좋아. 우리는 더 좁을 거라. 나무를 팔대니, 저녁에 우리가 데리러 올 때까지 어떤 가신 일래."

이렇게 제모는 말하고 아버지와 함께 어디론가 가 버

렸습니다.

심심해가 되니 그레델은 렐렐과 함께 새 목아지 땅을 나뉘어 먹었습니다. 그것은 렐렐은 잘하는 길에 뿌려 없는 때문이었습니다. 들이치는 밤이 된 데를 기다리느라고 잠이 들었습니다.

두 남매는 잠잠해져서 아주 오래 있었습니다. 렐렐은 동생 그레델을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그레델아, 말이 풀'에 거지 만 거다하라. 그러면 오라가 떨어뜨린 땅 조각이 보이지 수치는 집으로 갈 수 있지 않겠니?"

그녀는 봉안에 달아 비 올랐으므로 남매는 전였습니다. 그러나 렐렐일까요? 땅은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낮 봉안에 숲이나 물에 달아 다니면 새들이 모조라 집어 먹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도 렐렐은 그레델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인제 길을 찾자 될 거다."

하였으나, 도무지 길을 찾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매는 밤새도록 걸고,

그 이튿날도 아침부터 땅까지 전였으나 숲 밖을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무어하는 길에 떨어지 있는 얼마 안되는 과일을 먹었을 뿐이므로 때가 고과 전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한 나머지 인제는 한 말자 죽도 겁지 못하겠으므로 어떤 나무 아래 쓰러져 자 버렸습니다.

잠을 나와서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남매는 다시 전이 시작하였는데 도리어 자꾸자꾸 숲 속 깊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에 아무도 그들을 구해 주는 이가 없다면 흠이 죽는 모퉁이밖에 없었습니다. 바깥 한 낮잠 피어 슬라 같이 된 아 름다운 새 한 마





## 과고다 공원

옛날 서울에 종계루사정(鐘繼樓臺)이라는 관청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보고 있던 어느 영국 사람이 서울 시내 저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달동 공원 근처의 지명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 때 마릴 거기에 훌륭한 담이 하나 서 있었으므로, 영국 사람은 그것을 본 뒤에 "과고다 파문"(담의 정월)이라고 기

입해 넣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곳이 지와 일과 과담물에게 일의 지, "과고다 공원"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 18 층의 담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잠겨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679년 전 고려(高麗)의 충숙왕(忠肅王)에게, 금 물 (金窟)이라는 예쁜 공주가 있었다. 그때 공주는 열 나라 황제의 구혼을 받아, 그 밤 외국으로 떠날 길을 가지 되었다. 그러나 공주는 밤낮으로 그랑 생각이 간절하여, 자기 태실으로 생각되 주심사라고, 주 개의 풀 담을 유명한 석공(石工)에게 조각시켜서, 그랑 부모에게 보내드리었다. 아버지 되시는 충숙왕은 대담히 기뻐하시어, 아나는 계성(開城)에 있는 칠성(敬天寺)에, 또 하나는 지금

은 한이였지만 달을 공원 안에 앉힐면, 철과사(國寶寺)에 제우가 하였다. 그것의 바로 지금 달을 공원 안에 남아 있는 18 층의 담인 것이다. 그 담은 한수석(寒水石)으로 되어 있어, 부처, 사담, 정승, 화승 같은 것이 민들, 선이 깨끗하게 조각되어 있고, 그 서담 한과 고모함은 마른데 비할아 있는 뛰어난 것이다.



리가 나무 가지에 앉아서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듯 울었습니다. 남매는 잠자코 새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새는 다 울고 나서 날개를 펴고 저쪽으로 날아 갔습니다. 남매는 그 뒤를 따라 갔습니다. 새는 또 나무 가지에 앉아서 남매를 기다리는 듯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남매는 차꾸만 따라 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조그만 집 앞에 다달았습니다. 그 지붕 위에 새는 앉았습니다. 남매가 가까이 가 본즉 그 집은 무슨 집인고 하니 모두 땅으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는 파자로 만든 기와가 얹혀 있고 유리창은 모두 얼음사탕이었습니다.

"아아 어서 여자. 맛 있는

김밥을 아바 라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보다. 자 나는 지붕을 먹을 네니 너는 유리창을 먹으렴. 참 맛 있지?"

마고 델델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더음을 하여 파자가 얼마나 맛 있나 하고 시봉을 조금 데어 먹었습니다. 그리델은 들뜬 기에 가서 유리창을 깨뜨려 먹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밤 속에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바삭바삭, 바삭바삭, 누가 우리 집을 먹누."

합니다. 남매는, "바람이지, 바람이지, 하늘에서 내려 온 아이라누."

라고 대답하고 마운 뒤 울고 먹었습니다.

델델은 지붕맛이 그럴듯하

모르곤 기왓장을 하나, 꼭 데어 먹었습니다. 그리델은 유리창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아주 주저않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 때 필한간 문이 열리며 속에서 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가 커창이를 걸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델델과 그리델은 손에 붙었던 커창이를 떨어뜨릴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팔 귀염성스런 아이들이로구나. 누가 너희들을 여기 데어 왔니? 자아 이것만 이리할 들어 오너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일라든지 못하고 지내라."

하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  
그때 저녁, 두 아이는 혼자 사  
랑이 많이 붙은 커자락은지,  
사라 오뚜 같은 녀를 것이 그  
쪽그쪽 붙어 왔습니다. 다 먹  
고 나서 서로 수월 될 요해  
로운 비단 이불이 덮인 침상  
속에서 헬젤과 그레텔은 커  
모한 몸을 편안히 질 수 있  
었습니다. 두 아이는 마치 하  
늘나라에 온 것 같이 생각되  
었습니다.

그러나 정말은 혼일 낯습  
니다. 할머니는 경으로 오기  
전 무척 친절할 것 같지만  
사실은 무서운 요술할멈(요  
술을 하여 사람을 죽이는 할  
멈)이었습니다. 부자로 받은  
것으로 할 아이들이 울 대를  
기다리고 있어서 만일 누구  
든지 걸러볼까 하면 요술할  
멈은 아이들을 죽이시 끌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요술할멈은 살아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술할멈이라  
는 것은 눈이 새털같이 얇  
게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때  
신 점승과 같이 코도 냄새를  
취 할 것입니다. 사냥이 가  
카이 가면 역시도 금방 사람  
이 왔다는 것을 알지 못니  
다. 헬젤과 그레텔이 왔을 때  
요술할멈은 그 먹이인 열  
갈에 쓴웃음을 짓고서,

“흥, 맛 있는 음식이 걸러 붙  
었구나. 한꺼번에 붙적이나.”  
하였습니다.

날이 밝아, 두 남매가 일  
어나기 전에, 벌써 요술할멈  
은 자리에서 나와서, 꼬요히  
말뚝이 있는 두 아이를 내어

다 보며 손가락을 하였습니  
다.

“아이고 참 맛 있게 생겼  
구나.”

그리고는 헬젤을 일으키어  
손목을 더 잡더니 아무 말  
없이 조그만 풀밭으로 데리  
고 가서 문을 열려 잠겨 버  
렸습니다. 선잠을 깨자 갑자기  
당한 일이야 일면말하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가 으  
악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 소  
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헬젤을 치켜하고  
나서 요술할멈은 이 밑에 그  
레텔까지 와서 혼란이 깨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이 저를행이년아  
! 물을 길어 오고 네 오레  
비 찢을 먹을 것을 끌어 취  
다. 그 녀식은 곧밤 속에 넣  
어 부모 좀 살 처지 미칠 걸  
려야겠다. 너무 말라서 당장  
먹을 수가 없으니.”

그레텔은 너무나 놀랐고  
기가 막혀서 그만 악 소리를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러  
나 아무도 온갖 소용이 있겠  
습니까? 요술할멈의 시키는  
일을 거역할 도리는 없었습  
니다.

그런데 헬젤에게는 눈 맛  
있는 음식을 갖다 주었으나,  
그레텔에게는 개 말 한 개씩  
만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  
술할멈은 문밖에서 와서,

“헬젤야 네 손가락을 좀 내  
보이 나오. 얼마나 참이 울  
랐는가 보게.”

그런 때마다 헬젤은 아무  
턱다키나 먹다 남은 것을 보

었습니다. 요술할멈은 눈이  
나쁘므로 이것을 손가락으로  
알고 이레사 이레말 데미 살  
이 오르나하고 이상하게 여  
기었습니다. 네 주일이 지나  
도 헬젤은 조금도 살아 오로  
지 않으니가 인제는 더 참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년, 그레텔아, 냉큼 쾨  
아 가서 물을 길어 오너라.  
헬젤이 살아 걸거나 말렸거  
나 살만 있어 내일은 잡아  
먹어야겠다!”  
하고 화가 나서 악을 썼습니  
다.

정말 이 때 그레텔이 물을  
길러 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찔했습니까  
?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었  
습니까?

“하느님, 저희들을 살려 주  
십시오. 차라리 숲 속에서 오  
랑이한테 물어 죽는 것이 낫  
지않습니까? 그랬더라면 우  
리 남매가 한꺼번에 죽었을  
것을!”

하였습니다. 요술할멈은,  
“물기 싫어. 암만 지말을  
데 봐라, 소용 없다 없어!”

이렇게 일러 제어서, 그레텔  
은 숲에 물을 길어나가 물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 방을 갖자, 만주이  
세밀 잘 퍼있는데.”

요술할멈은 그레텔의 등을  
밀어서 물이 활활 라는 소  
알으므로 되서는,

“그 속의 줄 물어가 봐라,  
알맞게 더웠는가 안 더웠는  
가 알지.”

하였습니다. 만일 그레텔이

속에 들어 갔던들, 요술할범  
은 술 뚜껑을 덮고 그냥 앉  
아 버티던 것입니다. 그러  
나 눈치 빠른 그레델이 무슨  
수작을 하여는가 잘 알고 있  
었으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지 잘 모  
르겠어요. 어떻게 풀이 가는  
거예요?”

하고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이 바보야, 이렇게 큰 것  
이 풀이 잘 풀을 모르다니,  
아 이렇게 풀이 가란 만야!”  
하면서 그 옆으로 가서 술  
에 머리를 숙 붙는 시늉을 하  
였습니다. 그대에 그레델은  
있는 힘을 다하여 요술할범  
등을 밀어서 술 속에 차넣고  
뚜껑을 덮고는 그냥 활르고  
있었습니다. 아아 그 요술할  
범의 악쓰는 소리와 죽어가  
는 소리는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윽고 못된 요술  
할범은 세가 도미이 죽고 말  
았습니다.

그레델은 곧 헨젤 있는 곳  
으로 달려가서 문방 열쇠로  
문을 열고,

“오빠 인제 살았소. 요술할  
범은 죽었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헨젤은 방문이 열리자 농속  
에 들렀다가 나오는 새 모양  
으로 뛰어 나왔습니다. 남매  
는 너무나 기뻐서 서로 일차  
안고 정중정중 뛰었습니다.

인제는 무서운 일이 없으  
므로 요술할범 집을 잘잘이  
뛰었습니다. 모퉁이 전주 잘  
은 것이 여러 개가 놓여 있  
었습니다.

“이건 자갈을 보라 비쌀 거  
다.”하고 헨젤은 호수머니  
에 가다가씩 집어 넣고, 그레  
델도, “나도 집에 가서고 가  
야지.”

하고 앞치마에 잔뜩 담았습  
니다.

“자아 가자. 이 무서운 술  
을 이제 딱히 나가자!”

하고 헨젤이 말하였습니다.

남매가 무어 시간 것이 간  
주, 큰 강에 다달았습니다.

“이거 건너 갈 수가 있어  
야지 걸도 없고.”

하고 그레델이 걱정을 하더  
니,

“아이고 저기 댕 집오리가  
있으니 우리 생을 데서 저쪽  
으로 넘치 달라 그러지.”

하고,

“집오리아, 헨젤과 그레델  
이 여기 있단다. 걸도 없고  
다미도 없으니, 비 천 땅에  
우리를 데워 디코.”

따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더니 집오리는 이쪽으  
로 헤엄쳐 왔습니다. 헨젤은  
그 위에 올라 타고, 동생너  
리도 따라 뛰고, 그레델은,

“그걸 한 톨요. 집오리가 가

없으니 우리 한 사람씩 타고  
건넌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오리는 가쁜하게 헤엄쳐  
서 두 남매를 차리고 건너 주  
었습니다.

이리하여 다시 한가라 풀이  
간주 술에 익은 술으로 나왔  
습니다. 차차차차 걸었습니다.  
아! 나뭇대 제이커  
쪽에 아미지가 제실 살아  
있었습니다. 남매는 더러움  
이거시 집으로 뛰쳐 뛰어갔  
습니다. 아미지 혼자 제실  
입니다. 하늘의 빛을 달았는  
제모는 그동안 방불어 죽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더러움  
아미지 복해 데달렸습니다.

아미지는 아이장을 술  
에 ‘비리모 온 때보우리 이  
따서 마을 전한 날이 간  
도 없었습니다.

그레델이 앞치마를 허니  
전주와 모퉁이 파르르 들어  
져 나왔습니다. 이 여태 헨젤  
도 두어너에서 판오름씩 판  
오름씩 그림이 매었습니다.  
이리그 나니 아무 걱정거리  
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정말 즐겁게 행복스럽게 오  
래오래 살았습니다. (끝)

소학생·중학생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 學生朝鮮語辭典

이영천 선생 엮음·이희승 선생 감수

수정판 제6판 피는 중입니다

값 250 원 · 지방송료 10 원

서울 22路 2街 乙酉文化社發行

지방에서 注文과서하면 振替京號92548號를 이용하십시오.



본교부 편수국 전말과 김 계 태

시절(時季)

(1) 밤 시간과 낮 시간

여러 분은 낮 시간이 길어졌다 줄아졌다 하는 것을 다 아시지요? 봄 여름에는 낮이 길고 밤이 짧으며, 겨울에는 낮이 짧고 밤은 더 많이 길어집니다.

날마다 밤과 낮 시간이 조금씩 변합니다. 1년 중에 가장 낮이 긴 날을 하지(夏至)라고 하고, 가장 낮 시간이 짧은 날을 동지(冬至)라고 합니다. 하지는 6월 22일 경이고, 동지는 12월 23일 경이 됩니다.

밤과 낮 시간이 같은 날이 1년에 두 번 있으니,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입니다. 춘분은 3월 21일 경이고, 추분은 9월 24일 경이 됩니다.

날마다 떠 올는 시각과, 떠 가는 시각을 조사하여, 그림표를 만들어 보면, 밤 낮의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2) 떠 올는 방향·떠 가는 방향

다음에, 떠 올는 방향, 떠 가는 방향도 매일 조금씩 변합니다. 여러 분은 다 떠 올는 동쪽에서 돌아 서쪽으로 간다고, 말 하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꼭 다른 동쪽에서 돌아, 다른 서쪽으로 떠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참 계속하

여, 떠 올는 방향·떠 가는 방향은 조금씩 변하면, 몰 알 수 있습니다. 춘분이나 추 분 경에는, 떠 올는 동쪽에 서 돌아, 다른 서쪽으로 갑니 다. 여름에는 떠 올는·방향, 떠 가는 방향이 북쪽으로 조금 옮겨지고, 따라서 떠 가 는 방향도 북쪽으로 옮겨져서, 우리 머리 위 가까이

특요 새알심 김 상 옥

알심 알심 알심  
팔죽 속에 새알심

새알 같은 새알심  
동지 팔죽에 새알심

동지 팔죽을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고

새알심 하나 먹으면  
새알만큼 더 큰다

새알 새알 새알  
새알 같은 새알심

(그림·경 원용)



지내갑니다. 겨울에는 여름의 반대로 바운 동쪽에서 남쪽으로 조금 옮긴 곳에서 해가 뜬다, 서쪽에서 남으로 조금 옮긴 곳으로 해가 집니다. 따라서 해가 지나가는 길은, 남쪽으로 많이 옮겨져, 오정 때도 해가 머리 위에 있지 않고, 낮은 하늘에 있습니다.

(七) 해의 고도(高度)

이것을 조금 알기 쉽게 말하자면 먼저 해의 고도라는 것을 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를 쳐다 볼 때, 우리

눈과 해를 이은 직선과 지평선의 각도(角度)가 해의 고도입니다. 곧 해가 바로 머리 위에 있으면 해의 고도가 90도이고, 동쪽 지평선에서 해가 뜬다 올 때는 고도가 0도입니다.

이것은 별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해의 고도를 말합니다.

하루 중에서는 오정 때가, 해의 고도가 가장 크며, 해를 볼 때 해 뜰 때가 해의 고도가 가장 작을 때입니다. 해의 고도가 클 때는 덥고, 해의 고도가 작을 때는 춥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가 머리 위에서 바로 내려 조일 때는 덥고, 지평선에서 미스들이 비칠 때는 춥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같은 시각, 이르면 오정 때를 비교하여 봅시다. 여름 날 오정 때는 해가 머리 위였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오정 때와 겨울 오정 때 어느 쪽이 해의 고도가 더 높습니까? 물론 여름이 고도가 크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같은 시간, 별을 받아도, 해의 고도가 클 때는, 많은 일을 받으며, 해의 고도가 작으면 일을 적게 받을 것입니

라니까, 다시 말하면 그림자의 길이가 길 때는 춥고, 그림자의 길이가 짧을 때는 덥습니다. 여의 높은 겨울과 여름의 같은 시각에 비치는 그림자의 길이가 얼마인가 아시겠습니까? 겨울이 훨씬 길습니다. 여름에는 별빛이 강해서 얼마 들어 오지 않는데, 겨울에는 땅 속까지 들어오는 것은 이리 볼 때 아실 것입니다.

(八) 여름과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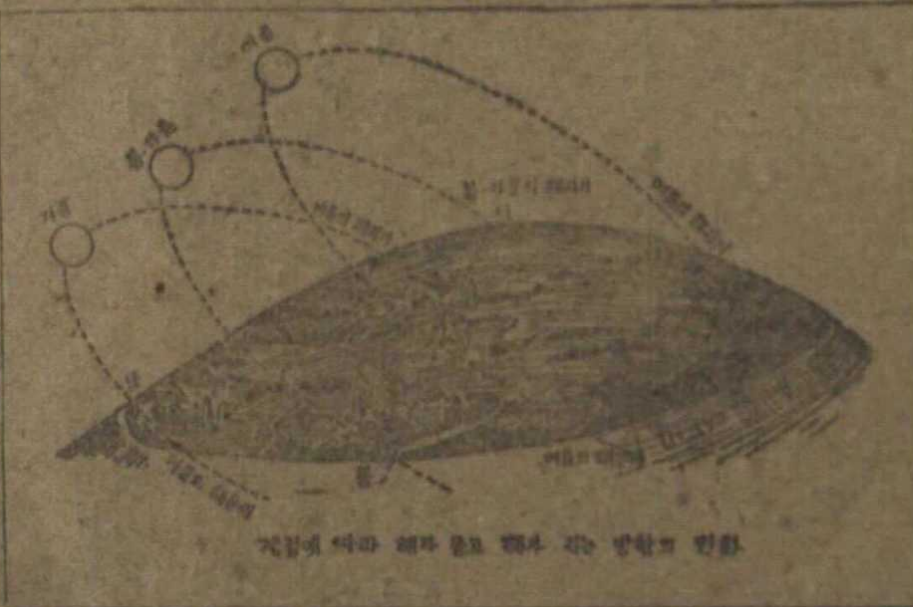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시 간단히 말하면 다음의 같습니다.

○여름에는 해가 비치는 눈썹이 길어지고, 해의 고도가 높아져서 많은 일을 받습니다.

다. 그래서 여름은 덥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비치는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해의 고도도 작아서 해가 미스들이 비스니까, 해에서 받는 일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여름보다 춥습니다.

○봄이나 가을은 해가 비치는 시간이 길어도 춥고 덥지도 않으며, 해의 고도도 적당함으로 마듯합니다.



지평선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방향의 방향

다. 해의 고도가 변하는 것은, 그림자의 길이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는 해의 고도가 작습니다. 그때 그림자의 길이가 어떠합니까? 오정 때는 하루 중에 가장 해의 고도가 높습니다. 그때는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그러니까 해의 고도가 크면 그림자의 길이는 짧고, 해의 고도가 작으면 그림자의 길이는 길습니다. 그

1월 1일 **과학 공부** 1월 1일

**1. 부엌**

원래의 두 팔에 무게를 갈고 달고 이등 위에 철사 놓으라.

철사의 무게를 철사에 달고 대안 놓아서 나중엔 물로 무게를 잴란다.

자! 무게를 잴란다!!

자! 무게를 잴란다!!  
안맞아! 아! 무게를 잴란다!!

**2. 물**

어디? 바닷물이 저쪽이야?

탁

안! 맞았 외라!!  
혹 무게는 어디로 갈고 잴란다??

부드러운 피부를 얻어지거나 상해되거나  
호흡을 빨리 막으려  
시발이 모른다. 유  
조각이 부어간다.

부들부들 모를 것이지  
은 것 아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줄지 않지!

**3. 조사**

이런쇼! 장님이 책을 읽고 있네?

안! 별한 책이?  
점만 꼭 책 읽어내게  
재미 있네?

이것은 점자라고 하며  
점이 많이 묻어서 같은  
이름이 손가락으로  
느껴들어 읽는  
것이란다.

눈 뜬 사람은  
볼 수 있지요!?

안! 정전!

나도 점자책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4. 물**

저기! 초선  
남자가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는다!

자니까  
그렇지  
어

우물 물을  
살아!

가방이 있어! 차갑다고?  
우물 물을 일년중 항상  
신사도 한우로  
변하지 않는 거야!

여름에도 마갈의 온도가  
따뜻하게 차갑고  
겨울에도 마갈의 온도가  
따뜻하게 뜨겁게  
물은 온도를  
변하지 않는 것이야!

# 우리 나라 신문 역사 (2)

## 리 . 준

그리는 동안에 이롭게 거  
을 즉 고종(高宗) 21년 12  
월 4일 저녁에 조선 역사 상  
에 유명한 갑신정변(甲申政  
變)이 일어났습니다. 김 옥환  
(金玉鉤)을 비롯하여 지암도  
살아 지신 서 지철(徐繼畲)  
등의 개화당(開化黨) 투당문  
이 보수적(保守的)인 사대당  
(老大黨)을 죽이고 정권(政  
權)을 잡으려 하여 세 세상을 만  
들며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  
나 불행이요 3일 후에 이국  
고 실력하여 정권은 보수당  
의 손으로 돌아 가게 되었습  
니다. 이러한 격대한 사변이  
있었음으로 "한성 순보" 역시  
개화당의 한 무리나 하여 동  
장윤 승격 당하여 휴간(休刊)  
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  
습니다.

그 후 고종 23년(서기 18  
98년)에 이르러 휴간 중에  
있던 "한성 순보"를 다시 발  
간하게 되었으나 이번부터는  
"한성 주보"(漢城週報)라 이  
름을 고쳐, 종래에는 한 달에  
세 번씩 내던 것을 일 주일  
에 한 번씩 내기도 하였을 뿐


만 아니라 한문이나 국문도  
섞여 쓰여졌었습니다. 지금 우  
리가 생각할 때에는 신문에  
우리 국문을 쓰는 것이 무슨  
문제 일어렸을지까지는 그 당  
시에 있어서는 한문을 전사  
(顯書)라 하여 장년 글이라  
하고, 우리 국문을 명문이라  
하여 젊은 사람글이나 젊은  
것으로만 여겨 전사하던 때  
라. 신문이라 국문을 쓰다니  
말이 되느냐 하고 일부 학자  
들은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인으로써 평평  
모름으로써 있던 진 실(秦失)  
이라는 사람이 국문을 채용  
할 것을 역설하였는데, 특히  
고종 황제께서 국문을 꼭 채  
용한다는 훈부가 있어 모여  
어 "한성 주보"에 국문의의  
기사를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일부 신문기  
자들도 국문을 잘 모르는 경  
향이어서 한글을 신문에 채  
용할지로 하자 의중지물 "가  
가 거기"라고 국문을 배우지  
않으면 아니 되었더라 합니다.  
그래서 국문에는 일본 유학  
생 출신으로 유 길준(俞吉濬)

이 담당하기 한편 기사를 쓰  
고, 또 한편 다른 단락사 출  
생인 기자들에게 국문을 가  
르쳐 주었습니다. 이 신문에  
붙은 기사도 훌륭한 사람으  
로써 아직도 생존하여 저술  
으 석필(錫璧) 노인으로 그  
대의 별 사람입니다.

이 신문도 역시 그 후 얼마  
가지 못하고 고종 25년(서기  
1899년)에 박문부의 폐지(廢  
止)와 함께 폐간되고 말았습  
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발  
행하던 신문이 있었을지 약  
15년 동안에만 신문 없는 발  
행한 함축 생각이 계속되었  
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서나  
간 갑신정변에 벌이 미주으로  
망명(亡命)하였던 서 지철—  
서기 남조선 육포 정부의 의  
정대(議政官)인 서 박사(徐  
博士)—이 10년 만에 귀국하  
였으나, 나라를 그가 조국(祖  
國)을 망쳐도 버리면 데와 조  
국도 아들이 없어 모자 남방  
하고 있을 자음에 유 길준(俞  
吉濬)—일문보 부장 유 덕철  
(俞德澈)의 아리남—이 서  
지철을 붙잡고 신문을 발행  
할 것을 권함에, 이제 다시 용  
기를 얻은 서 지철 박사는 모  
자 힘을 내어 신문 창간에  
분명다면 중, 진양(鎭陽) 원  
년 4월 7일(서기 1896년)에

◎ 17년  
  
 문필을 할 때에는  
 눈길을 멀리 갈 때에 선  
 글

속 타닥에 모수를 부세 거  
별고 싶으면 조금도 수운 할  
을 모르고 걸어 갈 수 있습  
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  
지만 얼마 갈고 가면 불편  
한 줄도 모르게 됩니다. 꼭

한 번 실행해 보십시오.  


“독립 신문” 창간 제1호를  
내 놓았습니다. 이것이 곧 민  
간(民間) 신문으로서는 처음  
입니다.

제호로부터 기사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두 순국선열을  
사유한 새로운 신문으로서,  
기사 내용과 아울러 당시의  
보수적인 상층 계급(上層階  
級)에게는 ‘카타만 불땀이 아  
닐 수 없었다. 그 뿐 아니라  
제1면에는 영문(英文) 난  
을 만들어 외국 사람한테서  
조선의 사정을 알도록 하겠  
고, 일반 독자한테서는 정부  
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는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  
고 있으며 그것이 조선에 어  
떻게 생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열달아 기사  
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는 한편 그는 독립 협  
회(獨立協會)를 기묘하여 주  
립문(獨立門) 연설대 위에서  
구름 같이 모여 보는 민중들  
에게 열정을 하여 밝은 새 시  
기를 열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뜻으로는 “독립 신문”에  
임으로써는 연설대 위에서 어  
마 정장으로 하던군 웃고 줄  
기 하였던 것입니다. 시 제정  
박사의 활발스런 활동은 그  
대로 “독립신문”에 나타나고  
보니 일반 대중은 크게 매우



는 일이 있었으나, 상층 계급  
의 사람들은 마치 눈 아래 옥  
과 같이 새 제정의 경엄하는  
신문을 크게 싫어하여 어떻  
게 하면 “독립신문”과 새 제  
정을 없애거나 중이중이” 하  
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땅장 사  
당이나 속일 뜻이 험박(脅迫)  
하는 데도 있었고, 또 때로는  
말리기도 하였으나 민간(民  
間) 신문은 또다른 “독립신  
문”은 끝까지 그들에게 굴복  
하지 않고 민간 신문 나올 기  
일만 민중의 좋은 친구가 되  
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중(宮中)을 위시  
하여 상층부에서 새 제정을  
미워하는 무리가 많아져서  
드디어 귀국한지 2년 만에  
프랑스 조국을 봉치고 비주

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독립 신문”은 윤 치조(尹致  
昊)가 일제하에 가지고 중의  
자유 권리를 내오면 것을  
일간으로 모아서 계속하여  
발행하였으나, 1898년 11월  
4일 독립 협회원 일등은 전  
부 잡아 자꾸는 일이 생겨서  
민간 최초의 “독립 신문”은  
아깝게도 없어지게 되었습니  
다.

비록 “독립 신문”의 발행한  
날자는 몇 해 안되나 이 신  
문이 남겨 놓은바 여러 가지  
의 공로는 참으로 컸던 것입  
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신문  
이 많이 나왔으나 이 “독립  
신문”에서 여러 가지로 본받  
아 떠났음은 부말할 필요조  
파 없었습니다. (끝)

**담에게 깨끗한 물 떠  
이는 법**

여러 분에게는 물을 기르  
시는 분이 계시지요. 물을  
가득 기르는데 깨끗한 물을  
먹이시려면, 좋은 명이나 물

을 꼭 차게 냉어서 위에 그  
릇과 한 1cm쯤 떠서 병을  
거꾸로 달아 두면, 물은 병  
수통이에 달만큼 떨어져 나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  
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게 될

으므로, 늘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장편 모험 소설 곡마단의 비밀

북극성 지음  
정현웅 그림



## 지난 호까지와 대강 이야기

일본과 중국으로만 돌아다니던 곡마단이 서울에 나타났다. 단장은 일본 사람인데 그 곡마단에는 살호와 순자라는 크질의 두 어린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렸다. 그들은 불쌍하게도 부모도 모르고 나라도 모으며 10여 년 동안이나 그 늙은 단장에게 끌려 다니며 갖은 고생을 다 하러왔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우연히 자기의 늙은 의삼촌을 만나게 되어, 두 남매는 대단히 기뻐하였으나 그것도 잠깐 동안의 꿈이었으며, 그자리에서 그 악독한 단장놈에게 사명을 만났다는 죄로 죽도록 매를 맞았다. 그날 밤 단장은 쉼일인지 예집을 고쳐서, 부라부라 중국으로 간다는 명명을 내었다. 두 남매는 할 수 없이 한 지교를 내서 밤중에 도망하기를 약속했으나, 살호를 따져 나오고 순자는 구만까지 나오다가 풀썩하고 말았다. 그날 밤

거리에서 제 살호는 편장을 하고 명동 모퉁 집에 갔더니, 마침 의삼촌이 와 있어서, 의삼촌이 배의고 온 학생을 시켜 이관으로 가는 순자까지 끌 따러 나오라는 조그만 편지 조각을 건넸던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조각을 단장 마누라에게 풀키어 보리야 매만 맞고 있었다. 또 살호의 기묘한 키에 넘어간 단장이 하 단원들이 밖으로 나간 몸을 따라 살호는 단신으로 순자를 구원하여 얻고 나왔다. 그리하여 중학동에 있는 의삼촌에게 몸을 감수었다. 그러나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살호를 때리고 다 경찰에 붙들었는데, 불행히 간 순자는 죽기 중국으로 가는 육급 열차 속에 있었고, 의삼촌과 한 키로라는 학생은 곧 나오게 되었다. 살호는 몇 시간 후에 의삼촌 배 문 앞에서 한 키로를 만났다. 그 학생은 저속하여 살호를 위협한 그곳에서 데리고 남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둘은 여러 가지

로 궁극한 끝에, 한 키로가 그간 곡마단이 먹고 있던 서울에 찾아 가서, 단장 이라 할 줄로써 간다는 것과 다대이 밑에서 이상한 봉투 한개를 찾아냈다. 그래서 즉시 그 봉투만 열고 중국 봉투으로 향하였다. 불행 천장이라는 여관에 와 보니 거기 어떤 늙은 철물장이 신사가 있었는데, 그 늙은이가 바로 단장이라는 것을 손쉽게 눈치채고 받게 되풀 따라갔다. 다리가는 도중에서 하마로써 그 늙은이에게 속아 넘어가 성냥을 내 줄된 했으나, 살호의 여필한 눈치로 성냥을 수지 않아서 두 사람의 일할을 풀키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따나가 용서 어느 땅고 같은 점으로 물어 간다. 같이 관내 일 끝된 것을 꾸물기요, 다음에 원은 주머니에다 으른은 두손가락을 두번 내어 밀고 물어 간다는 암호를 알았다. 거기는 단순히 곡마단 때가 아니고, 반드시 무슨 무서운 비밀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도 짐작했다.



## 22. 부서운 모험

어느 먼 길, 국경을 넘어서 남의 나라 땅에까지 찾아 와서 어두운 밤! 무심하게 캄캄한 밤에 마귀 떼의 침포이치는 낫았. 또 그 집 속에 지금 여러 놈이 모여 있는 것까지 알았. 언젠가, 그러던 시골 촌락 하나에 도착 못하고 있는 걸작을 하면, 부 사관의 마음은 한바탕 거 탄방 있었 습니다.

생각 대로 하면 지금 방방에 탐이하고 뛰여 넘어 이놈의 집 속에 들어간 가면, 그 속에 분명한 순자가 가쳐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찾아 낼 수가 있을 것이요, 또 그 놈들의 비밀을 알아 내도 어찌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아, 그러나 이 집, 이 땅 넘어에는 그들의 떼가 몇 10 명이 있는지, 몇 100명이 있는지, 아는 도리가 없으니 약하다 약한 두 몸이 서둘러 들어 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떡할까요?”

“글쎄요.”

“이 집 속에 순자가 가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놈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요.”

“글쎄요, 우리가 이터고만 있어서야 안 되겠는데.”

그들의 가슴은 라기 시작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상호의 두 눈에는 순자의 우는 얼굴과 국경에서 본 어머니,

나, 아버지의 얼굴이 번갈아가며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러다가는 분명한 순자가 그 무마한 단장의 그 시골지곳한 세력에 우물거 말아서 온 물에서 피가 새출 흐르는 참혹한 경상이 눈에 자주 어른기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떨리고 그의 손은 저절로 수척 뛰여갔습니다.

“죽더라도 뛰여 들어가 보자.”

또 성당안 일을, 취했 일 때 아딜 색도 없이 결심하였습니다.

“네가 들어가 불타이니 당심은 여기서 기다려 주시오.” 하고 상호는 기호에게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들어 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어찌자고 그 속에를 들어 갈단 말씀이오?”

기호는 피정하면서 상호의 손을 쥐고 굳이 말하였습니다.

“그 속에까지 들어 갈 것이 아니라, 문을 열거면 그 문지키 놈을 끌어 내어서 무물기고 들어 볼지다. 그것이 낫지 않아요?”

기호가 생각한 이 꾀는 잘 생각한 꾀였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거만 하면 그놈이 혼자 지키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것이요, 또 만일 혼자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잠자코 끌려 나들이가 없는 것이니까, 소비를 지르든지, 또 무슨 군호로 지의 떼에게 통지를 하여 어머니를 뛰여 나올 것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일인지 불명한 일인지 지금의 무 사관은 그런 것을 꼼꼼히 생각할 만큼 마음이 조용하지를 못 하였습니다.

기호는 탐 밑에 숨어서 망울 보고 있거다 하고, 상호 혼자 그 마귀 같은 집 대문 앞에 울막 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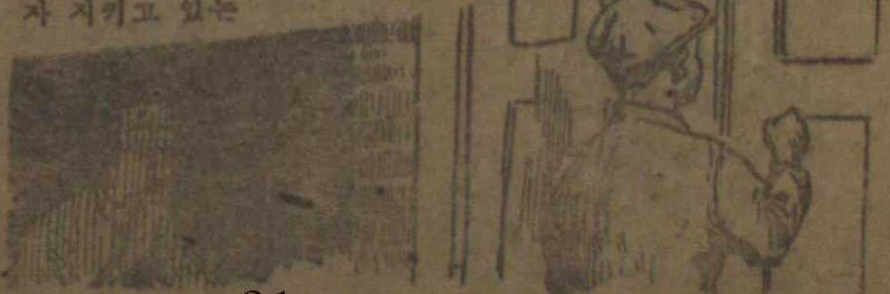
가슴이 두근두근 불사도 울렁거리는 것을 참으면서 대담스런지, 푹푹푹 푹 푹 번을 부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부터 문을 열라고 울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의 가슴은 무방망이 짙을 쳤습니다.

## 23. 문에서부터

어두운 깊은 밤! 지옥 길잠이 무심하게 어두운 중국 문철의 깊은 밤!

상호는 이제까지 락 밑에 숨어 서서 악한놈이 들어 갈 때마다 하는 짓을 보고



배워 가진 상호란 가시만 받고, 술자를 구하면 속집에 천 후 취침을 생각할 자이드 없 이 뛰여 가서, 그 마귀의 큰 갈은 피상한 티들림의 무거운 태문을 북북북 일곱 번을 부드렸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눈직이 눈이 일곱 번 치는 압호가 들리지 않는 것을 믿고 문을 여느라고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들리는고로, 이제는 악참과 일곱을 마주 치게 된 것을 생각하고 잡싸기 가슴이 울명기렸습니다.

일곱 번 부드리는 압호는 맞아서 문을 열기는 하지마는, 일곱을 마주 대면 당장에 말이 날 것이니, 이 급한 경우에 이제야 쓸까 하여, 저편 벽 밑에 몸을 움추리고 서 있는 기호는 상호보다도 더 가슴을 부근거리고 있었습니 다.

덜컹덜컹 마귀의 갈의 그 무겁고 무서운 문이 열리고, 툼툼한 속에서 귀신의 대가 리 갈이 서꺼면 일곱이 쑥 나왔습니 다.

“물키느냐? 죽느냐?” 하는 판이다. 티 밑에서 보고 있는 기호도 몸이 움짖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덜덜 떨렸 습니다.

상호는 가슴이 울명거리게 된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두 손을 내밀어 왼 손 주먹 위에 오른 손 두 손가락을 얹어 무 번째의 압호를 해 보이며 하 다가, 벌안간 뛰여 나가는 속 알 걸이 휘락 뛰어서 기호를



를 울명기시 며렸습니다. 내다 보면 문직이 눈은 무 언지 눈 앞의 섰던 눈이 건 기에 걸린 것 같이 휘락 없 어지는고로, 이상히 여기어 등불을 끌고 훑아 나왔습니 다. 나와서는 등불을 꺼 끌고 이리 저리 바쁘게 걷는데, 그 때에 불이 서서 티들림에, 락 쥘 같이 착 불이 있던 상호 가 다시 빈개 갈이 날아서 말 저 불이, 기호를 일싸 안고 얼뜨려졌습니다. 그러고는 몸과 두 다리로 그놈의 몸을 수모고 손으로 구중이를 내디 막아 눌렀습

니다. 원래 이마서부터 꼭마 단 때종대로 걸이운 상호의 술자라, 어떻게 된게를 잡어 덜속하게 불이 있는지 불의 의 술자를 받은 문직이는, 락 저 정갈 차면 자이드 없이 열 어 불이 가치고 사자를 떠들 비몽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불을 보고 섰던 기호가 뛰여 나와서 불이시 그놈을 끌어 붙여 살아낸 것 같이 기운을 죽여 가치고, 수 설 저편 기호가 숨이 있던 어 두은 락 밑으로 끌고 갔습니 다. (계속)

## 소학생 애독자의 책사

# 문 章 閣

“소학생”과 “아침” 반대의 책은 물론이요, 어린이들의 재미면 무엇이든지 갖추어 있으며, 이본문의 책도 가장 많이 받아 놓고 있는 책사입니다.

서울 종로 2가 · 영보 탤딩 건너편



세계에는 이상한 것,  
할 수 없는 것이 꼭 많  
있습니다. 인종, 민족도  
그렇고 오색하는 다수의  
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  
나 우리가 발견할 수 바  
라 의기한 것은 하나라  
나 없이져 기로 있습니다.  
오색하는 것과 불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득으  
게서에는 이상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문  
명도 한가지의 것 없이는  
일과 보일 것.



모를 열다 비는 남  
양 폴리네시아 사람.

★인사도 가지가지★



발을 아쳐 드는 인도  
사람.



발을 펼척 때리는 것  
스키모 사람.



손 바닥에 입을 바  
떨는 아프리카 보인.



목을 서로 감지뭉치는  
남양 코이아의 사람.



이마를 막 치고 뺨바닥을  
속 내키는 자발드 사람.



손을 맞잡고 세 손  
드는 중국 사람.

# 우리 나라 구경



지금 58이름이 퍼져 있는 평양을 평안남도 요령 소지적으 조선에 퍼 퍼져가는 크고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동쪽으로는 푸른 대동강

같이 구기쳐 흐르고, 북에는 아름다운 푸른 산, 여기저기 남아 있는 고적들은 옛일을 속삭이려는 것 같습니다. \*

## 2. 평양 (平壤) 김대녕

평양(平壤)은 오랜 전설(傳說)과 역사(歷史)에 빛나는 조선 최고의 도시(都市)입니다. 더구나 그 아름다운 풍경(風景)은 우리의 감흥(感興)을 일으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단군(檀君)이 여기를 서울로 정한 이야기는 여러 분도 역사(國史) 시간에 잘 배우셨지요. 그 후 여기는 기자조선(箕子朝鮮)의 서울로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후 지금부터 약 2100여년 전에 중국

(中國)으로부터 위만(衛滿)이란 사람이 옮겨 와서 기자의 후손(後孫)인 기루(箕婁)를 좇고 대신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만조선(衛滿朝鮮)인데 불과 90년도 못가서 한(漢)나라 무제(武帝)의 선병(征伐)을 받아 멸망(滅亡)하고 평양은 또한 위만(魏)을 건국(建國)한 한사군(漢四郡)의 하나인 낙랑군(樂浪郡)의 중심지(中心地)도 된 것입니다. 이 낙랑군이 고구려(高句麗)의 손으로 옮겨갈 때까지

약 400년 간 평양은 마치 중국의 한 도시처럼 퍼 퍼져 발달한 옛날 중국문화(中國文化)가 꽃피고 있었습니다. 평양이 고구려의 서울로 되어 있을 때 순(隨)나라 군대가 쳐들어 왔다가 혼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로 말(唐)나라의 손에 당나라의 평양에는 한때 한동(漢東)도(漢東都護府)라는 말나라 군정청(軍政廳)이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또한 신라(新羅)에 하서(高麗)의 평양은 서경(西京)——한때는 서부(西部), 소경(鎭京)이라 불렀던 한(仁宗) 때에는 소경(妙淸)이란 승이 평양을 서울로 하자고 남(麗)을 일으킨 일도 있었습니다. 또 역시 고위(高麗)의 원종(元宗) 때에 최전(崔沔)이 원변(李廷瞻)의 무리들이 여기서 난을 일으켜 몽고(蒙古)에 물러버린 일이 있어 평양은 약 20년 간 몽고의 영토(領土)로 되어 이릉도 동녕부(東寧府)——후에 동녕로(東寧路)——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평양이란 이름으로도 된 것은 고려(高麗) 말기(末期)인 공민왕(恭讓王) 때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조선(李氏朝鮮) 시대에 하서는 유명한 일변(倭寇)포로(倭寇) 때에 일본군(日本軍)이 평양(古領)하였다가 다시 조선(李氏朝鮮) 나라 연합군(聯合軍)에게 물러났으며 근엄(近嚴)에 위치한 평양(平壤) 때에 양근(梁堅)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지금서 기자(箕子)라고 평양으로 가면 대동강(大同江)을 건너기 바로 전 오른쪽 일대(一帶)에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자릉(箕子陵) 800년간, 고려(高麗) 왕조(王朝) 때 처음으로 건(建)하여 오늘날 푸른 소나무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명명사(大明寺)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고구려(高句麗) 광개토태왕(廣開土王) 2년에 만든 것으로 모한대(杜丹臺) 아래에 있습니다.

남산의 윤점(尹謙)이 있던 곳이고 그 무덤같은 남산 시에 사암들의 무덤입니다. 그 수는 약 1400이나 되어 그렇게 오래된 무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거기서 관한 것으로는 송진전(松仁殿) 외에 거자궁(箕子宮), 거자전(箕子殿) 등 여러 고적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전설적(傳說的) 존재입니다. 거자모는 모란대(牧丹臺)에 있으며 지금부터 470년 전인 주조대(周朝) 때의 처음 발견되어 무덤을 잘 꾸며져 있었다 하는데 그 당대 정말 거자가 누워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모란대(牧丹臺)에 있는 팔각 오층 석탑(八角五層石塔)과 대동문 중원(大同門 中園)에 있는 육각 칠층탑(六角七層塔)은 조씨 시대의 유물입니다.

천안 부근(附近)에는 남산 고분(古墳) 뿐 아니라 고구려 시대(高句麗 時代)의 무덤도 많이 있으며 천안 동북쪽 대산(大善山) 밑에는 1000 이상이나 있습니다.

천안 성벽(天壇城壁)은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에 보우왕(報幽王)이 처음 쌓은 것인데 조씨 시대에 와서 그것이 넓다 하여 다시 중성(中城)을 쌓고 이조 시대(李朝 時代)에 와서 그것도 넓다 하여 다시 이분(二分)하여 작은 성벽을 쌓았습니다.

송진전(松仁殿) 이것은 남산주(南山主) 고구려의 동명왕(東明王)을 모신 사당(祠堂)이며 유명한 이조(李朝) 태종(太宗) 대(代)에 처음 지은 것인데 처음 지은 그대로 칠성 뒤에 지은 것입니다.

송진전(松仁殿), 거자궁(箕子宮) 삼할(三할)이며 역시 세종대(世宗代)에 지은 것인데 송진전과는 달리 세종대(世宗代)의 건물(建

物)이며 전설(傳說)에 의거한 것일 수 없습니다.

보물문(寶物門) 이문은 평양성(平壤城)의 서문(西門)이며 조씨 시대의 처음 지은 것인데 지금 것은 이조(李朝) 실종(失蹤)

때에 다시 지은 것입니다. 그때도 약 470년 전 건물이며 여러 조씨 실종 중에서도 제일 잘 된 것이다 합니다.

대동문(大同門), 보물문(寶物門)보다 100년 후 최조왕(崔祖王) 때 지은 것인데 금중으로 되어 있으며 단단한 건물입니다.

이밖에 유명한 고적은 따로 사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이하에도 평양에는 많은 고적이 남아 있으며 누구나 꼭 한번 보아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하루 밤의 38선이 터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가볼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태년 선생님은 국립 박물관에 재직 분입니다.)

다음 조씨는 서술(西述) 제일 가까이 있는 조씨의 서술(西述) 개성(開城)을 구경하기도 하였습시다. 글은 지금 개성에 지시되어 여러 분도 알아시는 이정원(李正元) 선생이 세 주시기로 되었습니다. (편집권)



윤점대(尹謙臺) 주위(周圍)에 흐르는 천안강(天安江)과 남산(南山) 한 모퉁에서 보물문(寶物門)과 모란대(牧丹臺)와 아주 가까이 보여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영광정(鏡光亭) 대동문(大同門)과 같이 대동문가에 지어져 지은 선대(年代)도 미소합니다. 안주(安州)의 백담정(百潭亭), 진주(鎭州)의 종군정(鍾軍亭)과 함께 평양(平壤)의 삼명정(三鳴亭)이라고 부릅니다. 평양에는 중종 사당(中宗 祠堂)이 있어 아마 여기서 관제를 보았다고 합니다. 천안에 보이는 것이 대동문(大同門)입니다.



부조루(浮碧樓) 송진전(松仁殿) 밑 천안강(天安江)에 있으며 건물은 약 300년 전 이조(李朝) 태종(太宗) 대(代)에 지었습니다. 여기서 세종대(世宗代)에 조씨(趙氏)가 조씨(趙氏)로 개칭(改稱)할 수 있게 하였다고도 전해질 것입니다.





① 이집의 이집의 이집... (The text in this column is largely illegible due to the image quality and blurring.)



② 이집의 이집의 이집... (The text in this column is largely illegible due to the image quality and blurring.)



③ 이집의 이집의 이집... (The text in this column is largely illegible due to the image quality and blurring.)



④ 이집의 이집의 이집... (The text in this column is largely illegible due to the image quality and blurring.)



⑤ 이집의 이집의 이집... (The text in this column is largely illegible due to the image quality and blurring.)



⑥ 이집의 이집의 이집... (The text in this column is largely illegible due to the image quality and blurring.)

① 이집의 이집의 이집... (The text in this column is largely illegible due to the image quality and blurring.)



② 이집의 이집의 이집... (The text in this column is largely illegible due to the image quality and blurring.)

③ 이집의 이집의 이집... (The text in this column is largely illegible due to the image quality and blur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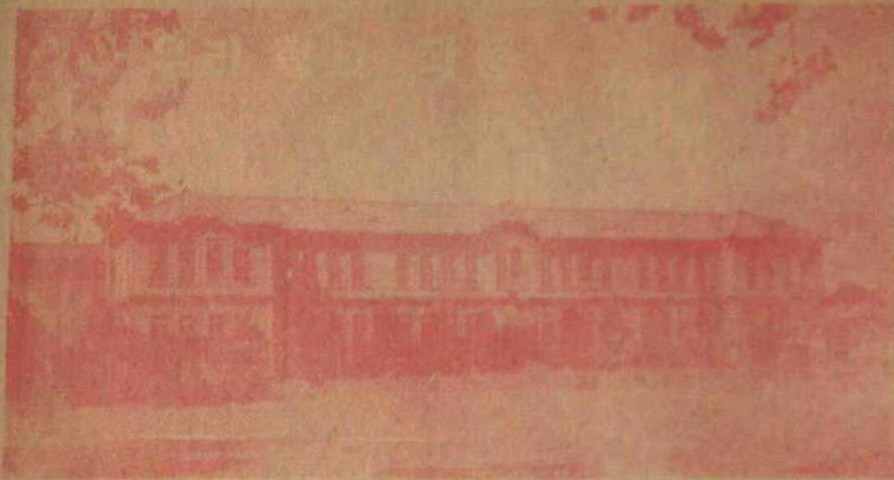
④ 이집의 이집의 이집... (The text in this column is largely illegible due to the image quality and blurring.)

⑤ 이집의 이집의 이집... (The text in this column is largely illegible due to the image quality and blurring.)



⑥ 이집의 이집의 이집... (The text in this column is largely illegible due to the image quality and blurring.)





## 제 2 회 서울 남대문 학교치

서울 남대문을 바라보고 서 있는 이 학교에는 요강 순 학교 선생님과, 요강 집 명보 선생님과 아술리 모두 서른 다섯 분 선생님 밑에서, 2,200 명의 어린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대장 전쟁은 일본에 의한 가르치던 학교였었는데, 일본 무력이 물러간 후 1945년 11월 1일에 문을 열은 아주 새로운 학교입니다. (기차)

### 등요 동 생

#### 5년 김 정우

두살 먹은 내 동생  
귀여운 동생  
어머니 무릎 위에  
다리 뻗고 앉아서  
짜짜깡 도리도리  
잘도 하지요.

셋살 같은 두 눈을  
반짝이면서  
나를 보고 반가워  
방긋 웃을 때

박새 같은 하얀 이가  
아주 예뻐요.



### 눈

#### 5년 김 흥섭

눈이 온다 눈이 온다  
함박 같은 눈이 온다

## 소학생 작품집

### 작문 소 나무

#### 3학년 장준호 4학년 김 인숙

나는 여러 나무 중에서 소나무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소나무는

언제나 푸르고 무성하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그 빛이 변함이 없고, 또 그 마음에는 조금도 변덕이 없어 보이니까요. 보통 나무 같으면 조금만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도, 단풍이 활이 잎사귀가 모조리 힘을 잃고 떨어 버리는데, 소나무는 절대로

살마당 철마당 살산 철산  
모두 모두 다해준다

자갈나파 할머니가  
흔들 뿌리지는 저 눈이  
땀가부라 하얏으면  
선 피어나 만물건

### 고향 생각

#### 6년 정 수연

알레는 시냇물  
흘러가고  
취해는 들은 산  
솟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 계시고  
이저의 아주머니도  
다들 제친  
아름다운 내 고향  
언제 가보나.

일요일 등부하고  
넋분에 가서  
고기 삶고 쪄줄던  
가지 가지 생각  
만학 때 엄마하고  
같이 가면  
모두모두 반가워 하던  
내 고향을  
언제나 언제나  
나는 잊지 못해요.

그런 일이 없이 글썽대 글썽하네다. 서머가 내리고 눈이 오고 겨울 바람이 일어 무서운 겨울이 딱히 오면, 빈팔의 생활인 사람들도 전편이 내지 못하는데, 소나무만은 저 혼자서 푸른 옷을 입고 그 광합을 팔내고 있지요. 그리고 사십 사천 변함 없는 내 마음은



게이 있게 놀다가도 문득 쓸쓸  
히 생각이 많다. 나는 그런 생각이  
나 할 때마다 이복에 있는 의붓  
생각에 맡겨도 안다. 무슨 황해  
(黃海)가 저기에 보이는 그 아  
다른 사귀던, 구별주말 일년 사  
나무 밑에서 사촌들과 사귀  
게 생각 있었.

연 날, 세 노  
르면 무슨 사  
과 가지고 올  
라가서 먹고  
노래하고 그  
여 술도 친구  
와 생각, 그러  
다가 비로 전  
주말 일출 기



차가 밤을 넘어서 지나 가면, 구  
리는 어떤 사귀를 잊어서 밤새를  
부르던 생각을 하면 친구와 가고  
싶으나, 나는 좀 나과 같이 이복  
같은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뿐이  
다. 그리고 그렇게도 제일 잘  
주식던 의붓어머니가 안락할지도  
모르고 싶고, 언젠가 되면 또 만날  
수 있을지도 생각하면 뜻깊어  
져 그리워 된다. 비록 무리는 저  
녁 먹은 뒤 어머니 옆에 앉아 앉  
아 의붓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지낸다. 나는 그런 때 언젠가 또  
이복에 갔다 오십 아버지께 "너희  
의붓어머니가 너희들보다도 주  
손과 보라고 하라면서 주시라"  
말씀하시던 생각이 나지 않겠지

보라는 뜻이, 눈과 열음이, 생각  
이 생각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양을 볼 때, 감으로 소나무는  
어디 나무 줄의 원이라고 슬피  
말 할까. 우리들도 소나무처럼  
언제나 변덕이 없이 푸른 마음을  
지니고 지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언젠까지도

눈물 것이다. 어머니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슬픈 얼굴은 다  
고 지진다. 언젠가 마지막에 다녀  
오면 이 의붓어머니를 떠나오던 날,  
이복생들과 작별을 하고 갈도 아  
니하는 것이 마 우리가 편아,  
일찍 그들은 안락으로 갔다나 판

가슴이? 정  
말이지 생각해  
보지 마시  
게 생각? 생  
각하면 생각  
할수록 조그  
만 가슴이 아  
라진다. 저 우  
리 한 나라에  
서 그런 일이

생각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 괜히 심할 것 같을지도 모  
른다. 사랑하는 조선의 아버지 된  
님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  
지 아시겠습니까? 할머니 지  
수의 조선을 위해서 의붓어머니를  
또 다시 만나게 해 주시고 그러  
고 망치이면 아들과는 의붓어  
머니를 가려 하지 않게 해주  
십시오. (끝)



남대문  
학 교  
교 표

# 이충무공 순신장군

글자  
제1권 광부



도 각  
제2권 이충무공

일과에 붙어 자이로, 오솔 하  
는 풀을 보며 후를 하고 피를  
다어. 하루밤 자이로 잠사가 변  
하는 수가 많습다. 이것은 잘  
못된 생각이므로, 나는 이렇게 마  
음 잘 변화는 불우들이 생기는  
것을 볼 때마다, 저 저쪽하고 변  
함 없는 소나무의 일생을 연상하

어, 그때서는 안되겠다고 마음  
깊이 감지합니다. 또 주절을  
할 때 함부로 사담들이 소나무  
를 베는 것을 보면, 안락하는 마  
음이 저절로 가슴에 가득 찹다.  
나는 이렇게 소나무를 어느 나무  
보다도 더 사랑하지요.

★ 과학 장난 ★

은 덩어리 달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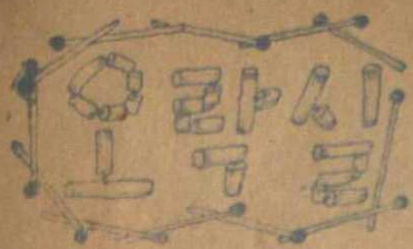
달걀을 중간 불에 으윽히 보습  
시오. 때때로 검은 점점이 가 붙  
게 됩니다. 그것을 잘 따내면, 그  
때 놓으면, 달걀은 금시에 그 점  
점이 무성이의 불결한 것으로부  
터, 은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달걀로 변해집니다. 참 신기  
한 일이지요. 불이 그 점점을  
짜갠이 것이 주었기 때문일까요  
?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시험  
적으로 그 달걀을 불에서 꺼내 불  
도리 밖에 놓으면, 그때그 어질  
히 처음과 같이, 점점이 붙은 경  
은 달걀에 조금도 변할 것이 없  
는 것을 보실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분 어찌할 바라할지 아시겠습  
니까? 그것은 극히 간단하지 설  
명할 수가 있지요. 달걀에 붙은  
점점은 아주 자의한 거부물로  
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갑자기  
불에 찌  
지는 않  
습니다.

직접 불  
에 찌어  
서 흔쾌  
히 찢으  
리라  
고 우리  
과학자  
의기 위  
하로 달  
걀의 지  
속은 사  
실은 불  
에 찌어  
있는 것  
이 아니  
고, 그 달  
걀의 면  
과 물 사  
이 공기  
가 들어

있어서, 검은 막(膜)을 이루고 있  
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물 속에  
서 이 막에 걸리어 반사(反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  
에 비친 햇빛과도 같이 사람들의  
눈에 반사되 옵니다. 이러한 어  
유도 점점이 가 붙은 시키면 달걀  
이 은 빛으로 변화하여 황안의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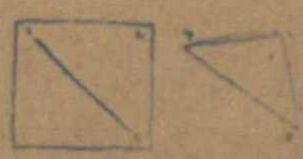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퍼  
간단히 실험해 볼 수 있는 화학  
공부이므로 한번 공부할을 보아  
다 볼고 그 과학에서 여러 공부  
할을 할때 보십시오. 그러면 어  
것을 실험할 때 한가지 주의할 것  
은 점 달걀을 불에 쓰이다가 어  
무한 간에만 쓰이게 되면, 달걀  
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일 필요가 있습니다. (끝)



〔부〕 선생 1  
실치에서-척척  
박수일을 만나  
조끼 꽃까지 청  
신했습니다. 갈  
수으로 물이 갈  
때는 학한 힘을  
살고 물이 가고  
나올 때는 그냥  
변함으로써 나오  
는 것이 무엇일  
니까? 전의달  
의 대답하세요.  
(피를 떠갈고  
여 가지)  
〔부〕 그건 승  
기학으로 말 하  
는 것. (척척박  
수)  
〔부〕 참 용과  
입니다. 그러나  
이걸 좀 색다른  
것이지, 아무  
척척박수라면  
전 해질것요 갑  
명 별차가 떠들  
질로 워를 살  
같이 달려가는  
대로, 말은 쓰  
고도 울리지 않  
고, 속강한 기  
성이 시키면 언  
기를 뽕으며 학  
복과 물을 해쳐  
도 달리는게  
도, 물결은 전  
지 않으니, 백

척척박수  
일까요? (척척  
박수 8 이거남)  
〔부〕 그거 참  
명 문번서, 나  
무 수시 때들  
그런 명자를 때  
본일이있었어,  
자네는 자남 위  
대한 새끼 지로  
를 괴롭고, 그  
뒤에서 기차하  
였다 키신이라  
던가를 상상하  
고있네 그이.  
(척척박수)  
〔부〕 척척박  
수님이 후하하  
다는 소리는 참  
이 재미있습니  
다 그럼 그렇게 잘  
아시다니 이미  
하나 물렸지요.  
삼만 팔리 정도  
로 뛰어서 앞서  
갈리고 해도 형  
이 동생을 못살  
지 가는것이 무  
엇입니까? (대  
선 재중교 4 것  
기총)  
〔부〕 이러한  
것 같으면서도  
쉬운 문제요단  
그것은 파워 볼  
달린 아좌. (척  
척박수)

손수전놀이 · 토끼



것을 손기하십시오. ① 그림  
을 그릴과 같이 직모형을 만  
든 다음, ② 손으로 "A"의  
두 끝을 묶어서 두 귀를 만  
듭니다. ③ "B"와 "C"의  
손으로 묶어서 앞다리를 만  
들고, ④ "D"와 "E"와 같  
이 만든 다음, ⑤ 위에 보인  
들만하면 적당 크기가 됩니  
다.

① 원 손수전이 하나 있으  
면 됩니다. 되도록 큼직한

# 백화관 7월

## \* 서울 국립 박물관 \* 이 규수



우리 나라 미술에도 박물관이 네 곳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어느 나라 박물관에 비하여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곳은 경복궁 안에 있는 국립 박물관과 덕수궁 안에 있는 덕수궁 미술관입니다. 이 두 박물관은 서로 비슷한 때가 있는데 우선 우리는 국립 박물관부터 구경하게도 합니다.

국립 박물관을 같이 가려면 경복궁에서 중앙정을 원점으로 하고 황하계 가다가 전승문으로 같이 가면 됩니다.

이 박물관은 우리 나라의 역사와 미술에 관한 것을 주로 전통의 높은 역사미술 박물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본관의 들어 서면 우리는 볼드관 곧 부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부처님은 경주 남산이라는 곳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 온 것으로서 이것은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부처님입니다. 그 온화한 얼굴



을 갖게 마주 서면 누구나 미미한 속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불교관계의 미술품이 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제일 유명하고 아름다운 것은 이 근 문부처에게 모신 금동(金銅)의

모 된 비루보살상입니다. 이것은 적삼으로부터 1천 304년 전에 만든 것으로 이 부처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조선 사람이 얼마나 미술에 대하여 남에게 지지 아니라는 훌륭한 계몽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경주 적삼암의 불상을 최고로 모양을 미치 조각(彫刻) 하였는데, 이것은 신라가 당시의 삼국을 통일한 후에 만든 것으로 그 자세스리를 일괄하여 아름다운 꽃지마의 실 같은 것은 이 시대의 불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이런 미술품은 여러 번 눈이 보지 않고는 그 어느 것이 광초로 아름다운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미술품을 보는 힘을 기르려면 이 박물관이나 덕수궁 미술관을 감은데 자주 가서 이러한 부처님을 많이 보고 감상 하여야 합니다. 이 부처님 있는 방에서 바른 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 꽃지는 삼국 시대와 신라 통일 시대





저 나라를 세운 것이 고구려라는 나라로 저들의 말갈 권관과 우리 나라 북쪽에 걸친 큰 나라이였습니다. 이 나라는 그 모습을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옮긴 것 같은데, 맨 처음은 말갈 북에서 저 알둔 갈 중부 술장진의 건너 편인 술산이 주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는 평양도 부근에 도읍을 옮긴 듯 합니다. 백제와 신라의 두 나라는 우리 나라 남쪽에 있었는데, 백제의 도읍은 원래의 경기도 광주 부근이었다가 물나루(술날의 술칠 남도 공주)에 옮겼고, 그 후 다시 부여로 옮겼습니다. 끝으로 신라의 도읍은 오 술날의 경주였었는데, 이 신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1천 3백 년 전에 전기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이는 동양에서 제일 강한 나라이였습니다. 중국은 통일한 술나라나 말나라로 고구려의 싸움을 하여 보낼 것 없이 왜하고만 일이 있던 것을 여러 분도 역사로 이미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지금 군대의 정일을 밝은 일이 많고 그 말벌처럼 말나라 말갈에게 무참히도 약탈을 당하여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무덤까지도 이지없이 도굴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산과 같이 큰 당시의 무덤이 땅 비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보배까지도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크나큰 나라에서 남은 것이 마르는 오직 몇 개의 기와나 돌기 같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와 같은 기와나 돌기 같은 것을 고구려

의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4천 이 년 전에 말갈이라고 하는 거목한 분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 때의 것으로 남아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고 따라서 학문상으로는 그때는 아직 선화 시대(新羅時代)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선화 시대는 확실한 유물이 나타난 것이 없으므로 이 박물관에서는 삼국 시대 이후 유물부터 전설되어 있습니다. 이 삼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로 나뉘어 있던 시대로 지금부터 약 1천 수백 년 전 서력 기원 전후에 시작됩니다. 제일 먼

저 나라가 서로서 있던 시대를 삼국 시대라고 하고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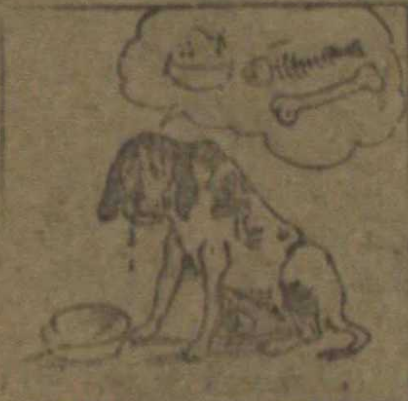


라가 통일한 이후를 신라 통일 시대라고 하는데, 고구려라는 나라는 나라로 쪼개져서 그 세력도 대단히 강하여 한

도 그 광모의 문 것으로 비추어 고구려가 얼마나 큰 나라였었던가를 어렵듯이나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신라는 그 나라가 전후 3백 이 년 간이나 영화를 누렸던 것과 또 그 멸망할 때에 고구려와 같이 약한 멸망을 하지 않았으므로 신라의 유물은 이 곳에서

있는 바와 같이 금한색이 잘  
 한 많은 물건을 남기었습  
 니다. 이 땅에서 저 나라의  
 것은 한담으로 전 합니다.  
 당시의 삶이나 귀족들은  
 이러한 관을 쓰고 담으로 만  
 든 미를 먹고 그 외에 이 못  
 될 수 있는 많은 음식장  
 하는 장식품으로 치장하고 살았  
 습니다. 고구려와 거이 동시  
 에 멸망당한 백제는 역시 최  
 후 궁궐까지 많은 약탈로 당  
 하였지만 이 나라는 겨우 이  
 왕의 전 왕에 가지 않았으며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은 많  
 이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못에  
 볼 수 있는 몇 가지 유물만  
 보더라도 그 나라가 문화상으  
 로는 고구려나 삼국에 지  
 지 아니할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이러 분은 이 전할실에서  
 비록 많이 기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나라는, 고구려 백제는 물론  
 우리 나라를 통일한 신라까지  
 고구려부터 약 천 년 전에 멸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천 년  
 이라는 사이에 온갖 문물은  
 무척이 퇴락하였으나 글이나  
 음악이나 또는 모기 같은 예지  
 아니하는 물건만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와도 역시  
 예지 아니하는 물건이므로 오  
 늘날까지 보존되어 온 것입니  
 다. 그 때에 서부터 전하여  
 오는 역사책을 읽기. 암마다  
 이러한 유물을 가지고 능  
 히 그 때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을 고  
 고학(考古學)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삼국시대의 유물  
 들. (다음 호에 계속)



### 개 보를 쇠뿔 한다

정월 보름, 날이 저녁에 먹은  
 것을 주면, 제가 병이 온다는 말  
 이 있어서, 그날은 조금도 음식을  
 주지 않는 습관이 있다. 그러기  
 무슨 명절 날 같은 때, 잘 먹어  
 먹지는 못하겠지만, 또 먹어 줄는  
 다는 뜻.



### 불난 집에서 불이야 한다

자기가 불을 났으면 가만히 꺼  
 어할 것이지, 불이 제 퍼져가도  
 불이 퍼지면 나쁜다는 말. 주 자  
 기 스스로가 임박하게 위험해지  
 때문에 자기의 흉어나 불길 같은  
 것이 저절로 남에게 알려준다는  
 말이 쓴다.



### 충남에 울담

충남에는 모든 성곽이 곤란하  
 서 세월이 속히 지나가게를 바라  
 는 것이 인정인데, 제마가 또 울  
 담이 커서 더욱 세월 가는 것  
 이 걸다는 일이다. 불행은 당할  
 데다가 그 뒤에 또 나쁜 일이 거  
 들렸다는 뜻이다.



### 없어서 비탄 지마

가난한 살림살이에 보름 입을  
 옷을 한 세로 만들 수가 없으며  
 라, 이제까지 스승이 장 속에 넣  
 어 두었던 단 한 벌의 비단 옷을  
 꺼내 입었는데 남 보기에는 아주  
 넉넉해서 비탄 지마를 입은 것  
 같이 보인다.

(그림·김 의환)



# 동물원구경

## 6. 표범

### 주요점

표범을 가꾸어 문 앞에 오니 표범은 울타리 속에 있는 방 안에서 불이 가 있지 않고 문에서 무엇을 기다리는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을 때가 되었는데 오늘날은 날이 더우니까 가깝하고 더운 방 안에서 저녁을 먹지 않고 려캉살로 풀의 싸이기는 했지만 이 문에서 한 마당 먹으러나오다.” 하고 삼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려캉살이, 뿔로 뿔뿔해 보이지 않는데……”라고 이모가 말했습니다. **우미**는

“저 자꾸 나만 볼까 저 표범이?” 하고 증얼거렸습니다. “저 눈 피라, 참 무섭게 두 생겼다.” 참으로 그 범은 꼭 **우미**만을 특필히 쓰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 배가 고프니까 너만 보는가 보다.” 하고 **광호**가 울음을 흘려 주었습니다. 사실 날이 저 그 표범이 **광호** 자기를 똑바로 보지 않는 것이 제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게는 이 범이 더 그렇게 무섭지가 않다.” 하고 **광호**는 뽕뽕했습니다.

“지금 이 속에 가둬 있으니 저 그렇게 산에서 어둠을 만났다가는 너무 그렇게 마

음을 못볼 것이다. 사실 이 표범의 몸집은 자자나 호랑이보다 작지만 포수들은 이 표범을 더 무서워 한다. 표범은 뛰기로 잘 하고 나무에 기어 오르기도 잘 한다. 사실 표범이 산에서 먹을 것을 잡으려고 할 때에는 늘 나무 가지에 올라 가 앉아서 서나 원숭이를 노리고 있는 범이 많다. 그 일목일목한 점이 사실 몸을 잘 숨겨 준다. 가까이 가 보면 나무잎 사이와 가지가 일목일목해서 표범이 앉아 있는 것을 알곤 알아 보기가 힘이 든다.”

“북극에 사는 흰곰의 털이

될 것과 마찬가지로.” 라고 **광호**가 자기 지식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한가지 어차, 모호적이야는 것! 그리고 표범은 뛰기도 잘 하지만 **아메리카** 표범은 태임도 잘 된다. 그래서 문장 가운데 배를 타고 있는 사람도 갑자기 달려 붙어서 붙어 죽이는 수가 많이 있다. 또 강물에 앉아서 물 속에 태임지는 물고기를 그 힘센 앞 발로 때려 잡아서 먹기도 한다. 표범이 많아서 겨울이 알을 낳아서 모래 속에 묻어 놓아 두는 것을 보아 수컷다가 나중에 와서 파 먹는 수도 있다. 그리고 표범이 물에 근처에 나타나면 소란이 자꾸만 잡혀 먹히곤 한다.”

“그놈의 털 나쁘게 두라.”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로 털을 좋아하는 사



받은 것이. 그러나 그 가족은  
 으레 아름다우하? 또 어떤  
 종류의 것은 그 가족이 아주  
 새롭고 반스르르한 것이 실  
 승으로서는 일종이다. 그 중에  
중앙 아리아 일대 사는 모  
 평은 아주 아름다우게 생겼  
 는데 그 모리가 흰이 많고 길  
 이가 자기 몸통이 모다모 더  
 긴데 몸이 길고 살 굵다. 그  
 러나 이 종류는 그리도 짐승  
 에는 볼 수없어서 사냥꾼이  
 잡지 살하다가 길을 찾아가  
 짐승이 기르는 데도 있다. 그  
 러면 사아 저 팔을 보아라.  
 저것은 쇠이리라고 하는 일포  
 산 짐승이다. 어떤 것을가? 저  
 녀가 짐승에요 제일 신경질  
 이야. 모니 허리가 날심라고  
 새까만 쇠이리가 열쌍 앞으로  
 나하나씩 무슨 모인이 있  
 는지 데어섯 번 안다말지 왔  
 다갔다 하더니 다시 뛰고 숨  
 이 되었습니다. 삼촌은 실망  
 을 계속합니다.

"일포의 귀족들은 이 쇠이  
 리라는 짐승이 마다 길은  
 들어서 집에서 기르는데 사  
 냥 나갈 때 사냥개 대신으  
 로 쓴다. 말도다모 게도다모  
 말이 뛰는데 사냥을 떠날 때  
 에는 이놈들을 모두 눈을 치  
 며 가지고 사냥개로 끌고 가  
 지 짐승이 된듯만 하면 얼른  
 눈 가림을 풀어 주인 그야  
 모 번개 같이 달리 가는데 안  
 잡힐 짐승이 있지. 쇠이리 목우  
 쓰 일포들이 이 짐승 쇠이리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쇠이  
 리는 그 주인과 한 자리에서  
 자는데 데고는 주인과 한 이

# 우리 학교가



## 서울 봉래 국민 학교

물치 같은 꿈은 의지 불함에 띠고  
 변함 없는 맑은 기상 함강에 풀이  
 앞 뒤로 수모 시골 다 굽어 보는  
 드문고 웅대함은 우리 봉래세  
 무궁화 된 동산에 불래 어린이  
 물치자 무명자게 영원 무궁하도록

백두산의 서기를 받은 두리를  
 있는 힘을 다하여 재주를 길러  
 반만년의 빛난 역사 더욱 빛내고  
 억만년의 새역사를 엮어 나가세  
 무궁화 된 동산에 불래 어린이  
 물치자 무명자게 영원 무궁하도록  
 (민 신기 자음)

문을 열고 잔다. 혹은 밤의 수건을 쓰고 주인의 물대  
 "남이 못잡아 쥐지낼 때에는 누이 있는 것을 본 일이 있는  
 주인이 가던데 그 밤의 머미 때, 꼭 사람이 자미옷을 입고  
 에 수건을 끼워 주인 땀은 물 누이서 일어날까말까 하면서  
 조용히 잔다. 아침 일찍이 나 하중과 거지개를 하는 것으  
 는 이 밤이 기판간 담요를 물 모 잠을 볼 수가 있었다고.  
 에 반쯤 덮고 머피어는 딸같

어린이 고 소년 소녀 에 게	<b>소년 소녀          명작 초선</b>	<b>일세동무</b>	제 미 있 고 유 학 한 소 선
	일세동무의 주인공 "세환"이는 조선이 요구하는 소 년이다. 세환이의 눈부신 활약을 본받아 일세동무와 같은 소년 소녀가 많이 나와 주게 바란다.		
	책 값 • 180 원		
	서울지 권지봉 82		
	<b>한성 도서</b>		

# 少年三国志

박래원 著  
김기영 1권



## 제 2 장 조 조(曹操)의 장 거(壯舉)

### 一, 동탁(董卓)

한번 기울어진 나라 형세는 좀처럼 다시 부활이 일스키는 수가 없다.

황건적(黃巾賊) 난리가 가까스로 진정 되었더니, 그 위에는 또 환관(宦官)의 무리가 단미를 일으키고 그 것이 겨우 끝날 무렵에는, 동탁(董卓)이라는 권고에 드문 갈진(姦臣)이 새로이 나라의 모든 권세를 잡아 버렸다.

이 동탁이란 자는 황건적 난리 때는 늘 싸움에 지기만 하여, 나라에 큰 죄를 지었던 것만, 쫓구멍으로 몰려 환관들에게 뇌물을 많이 써서 간신히 면하고, 마침내는 그 뜻대로 나라의 중한 권세까지 잡게 된 것이다.

이때, 영제(靈帝)는 이미 늙아가고 태자 연(太子 獻)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탁은 저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

고, 거의 권세를 좀 더 잡하게 하기 위하여, 마침내 이 임금을 몰아 내었고, 이 임금의 아우 협(協)을 새로이 천자(天子)의 위(位)에다 앉히 앉지 놓았다.

아무 죄 없이 몇년간 내외 임금을 위하여, 선하와 덕정 같은 속으로 섬기다 살아가고, 또 동탁이를 만고에 다시 없는 여객(姦賊)을 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천하 동탁이의 권세가 온데나 그에게는 여포(呂布)라는 무서운 장수가 있고, 또 수하 군사가 이십만 명이나 되었으므로, 아무도 제가 나서서 반대하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동탁이를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고 생각들을 하였다. 나라야 어찌 되든, 백성들이야 어찌 되든, 저 한 몸의 부귀(富貴)와 영위(榮華)를 위하여, 동탁이가 갖은

못된 짓을 다 하는 것을 볼 때, 마음 깊은 선하들은, 이 명제든지 하여서 그를 죽여 없애고 말하여 가는 나라를 바로 살아야만 하겠다고 생각들을 하였다.

### 二, 칠보도(七寶刀)

이때, 요기요위(兗州校尉) 벼슬이 있는 조조(曹操)라는 사람이 있었다. 제국 조군(渤海郡守) 출생으로, 자는 정덕(正德)이니, 어떤 내무관이라고 할 수 있을 줄 모르며, 저가 당고 재수가 날라운 사람이다.

그는 황건적 난리에도 공을 많이 세웠고, 환관들이 장난을 하였을 때도 나라를 위하여 정력하는 자가 많았었다.

그러한 때에, 동탁이가 권세를 잡은 뒤로는, 자수 그에게를 드나들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조조를 정개(節介)가 없고 비부(卑陋)한 자라고 손가락을 쳐



었다.

그러나 조 조의 참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짓 동탁에게 아첨하여 그의 신임(信任)을 얻은 다음에, 기회를 보아, 이 역지를 속이려 한 것이다.

어느 날—, 조 조는 마침내 뜻을 결하고, 동탁을 찾아 갔다. 그의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은 칠보도(七寶刀)라고, 질하게 뜨른 보검(寶劍)이다.

동탁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 조가 찾아 오는 것을 보모를 보았다.

“네가 오늘날은 왜 이리 늦었느냐?” 조 조는 대답하였다.

“저의 말이 이제는 참

어디 그런지, 모루서 걸을 이 느리하여 늦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동탁은 정색이 있으면 이 포를 돌아 보고,

“마구대 가서 말 탄 뒤 줄은 놓으시오 풀라 마구서다.” 하고 분부한다.

“네—”

하고 이 포는 탁으로 나간다. 조 조는 혼자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눈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마음만 잔아지는데, 풀 밭을 밟아 단번에 죽어 버리고 싶었지만, 동탁이는 선제 힘이 강하다, 저들이 덤비었다가는 일에 아들은 선제하고 말 것이다.

조 조가 삼간 망설거리고 있으려니와, 동탁이는 선제 몸이 비대(肥大)하여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하고, 그에게 몸을 향하고 자며 쉬어가 수이 버린다.

(음! 이제는 네가 갈때



없이 내 손에 죽었다!...) 조 조는 급히 칠보도를 꺼내 들고 그에게로 달려 갔고 하였으나, 일은 정말 꿈으로도 상상도 하라.

조 조는 그가 받아 붙여주었으니까 모모려니 하였지만 동탁이가 향하여 누운 바람 때에는 커다란 거울이 하나 걸려 있어 있었는 것이다.

동탁은, 조 조가 칼을 때어 뜨는 모양을 거울 속에 보고, 깜짝 놀라 몸을 뒤지며 물는다.

“네 빌 하느냐?”

대마침, 밤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이 포가 들어오는 난지다.

조 조는 즉시 칼을 두 손으로 바치. 잘고, 몸은 뒤 굽어 앉아 아뢰었다.

“세시 보검이란 자루 있거로, 감히 승상(丞相)께 바치는 바입니다.”

동탁이 받아 보니, 칼 질히가, 탄 자 남쪽향대 칠보(七寶)를 아로 새기고, 날이 매우 날카로우

파인 물림 없는 보검이다. 그는 마침 들어 손에 이 포에게 그 칼을 주고 함께 갈로 내려가 길을 구경하였다.

조 조는 칠보도 은 일이 이처럼 물리고 보니 이제

는 잠시 마의 이곳을 빠져 나갈 생각만이 간절하다.

그는 동탁에게 무언을 할 다음에 말하였다.

“어디, 관원 시험 삼아 따 붙짜요?”

\* 동탁이 허락하자, 조 조는 즉시 말 위에 올라 마의로 나가며 그대로 동북을 향하여 달이 갔다.

조 조가 나간 뒤에 이 포가 말하였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조 조 거동이 수상합니다. 질상

은 제가 다른 생각을 먹  
고 왔다가, 일이 뜻 께  
안되니까, 고집을 바칠  
것이나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문  
탁도 그러한 의뢰이 든다.  
"그럼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

"사람을 조 조의 처소로  
보내서 불려 보십시오.  
그때, 제가 뜰 오면 정  
말 보감을 바칠 것이고,  
만일 오지 않으면 말 뜻  
을 가졌던 것이 분명하  
니까, 잡사다가 엄하게 문  
초를 하여 보셔야지요."

문탁은 그 말대로, 곧 군  
사 네 명을 보내 보았다. 군  
사는 한참만에야 돌아 와서  
아파는 말이, 조 조가 제의  
처소로는 돌아 가지 않고, 근  
대로 동문(東門)밖으로 나갔  
는데, 경관을 지키는 군사가  
같으니까,

"물 숭상(肅丞相)의 분부  
를 받고 가는 것이다."

하고, 뒤도 돌아 보지 않  
고 말을 달리며 가버리는 것  
이다.

문탁은 크게 노하여, 곧  
각처에다 조 조 잡으라는 문  
서를 돌리고, 누구든지 조 조  
를 사주잡아 파치는 자에게  
는 높은 벼슬과 후한 상금을  
내릴 것이고, 만약에 조 조  
인줄 알고도 숨겨서 두는 자  
가 있다면, 조 조나 팔가지  
로 죽을 때까지 하겠다.

### 三, 의병(義兵)

조 조는 달는 말에 재적전



하여, 제의 포강 초군으로 불  
아 갔다. 이제 그는, 자기 고  
향의 군지 삼아, 크게 의병  
(義兵)을 모집한 다음에, 서  
울로 올라 가서 문탁을 치려  
는 생각이다.

그러나 군사를 품으려면,  
무엇보다도 말마는 것이 든  
이다. 그는, 자기 시골에서  
짓은 짚은 부자 위 추(衛丘)  
이란 사람을 찾아 가서, 자  
기가 품은 큰 뜻을 말하고 설  
조하여 수기를 간절히 청하  
였다.

위 추도 무던한 사람이다.  
그는 나라를 위하여 하는 일  
이라면, 그까짓 재물은 조급  
도 아깝지 않다고, 그 자리  
에서 응낙하였다.

조 조가 의병을 모으려는  
소문이 잡힐 피지자, 각처에  
서 응모하는 사람이 뒤를 이  
여 모여 들었다. 그 중에 개  
도 일가 형제 되는 조 인(曹仁)  
• 조 홍(曹洪)이며, 하후  
봉(夏侯 豐) • 하후 연(夏侯 淵)

淵), 이 건(韓 勳) • 악 선(樂 進)  
賢) 같은 사람은 모두 무예  
(武藝)가 남에게 뛰어난 장  
수들이다.

조 조는 그들을 대장을 삼  
아, 군마(軍馬)를 조련(操練)  
한 다음에, 각 성(城)의 제후  
(諸侯)들에게 적군(讎軍)을  
보내서, 함께 힘을 합하여 문  
탁을 치라고 약속하였다.

조 조의 격문을 보고, 실  
사 태수 손 건(長沙 太守 孫 堅) • 말현 태수 율 소(潯陽 太守 劉 劭) • 남양 태수 율 순(南陽 太守 劉 翊) • 북평 태수 공 원(北平 太守 公 孫 瓚)이 따르며 열 열곱 제후가  
부부 군사를 일으키고, 서을  
낙안(洛陽)을 바라보고 나아가  
니, 아를 제후 가운데 군사  
가 많은 자는 삼만 명이고,  
적은 자도 일어난 명은 천다  
이네. 순 건은 절절 땅에  
서 원님 노릇을 하고 있다가  
선에 참여 같은 배운 불철 배  
수 불을 활어 군사를 이끌고

서나가는 것을 보자, 몸 풀  
은, 잘 비와 함께 지수를 비  
리고 그를 따라 나섰다.

#### 四, 술이 재 식기 전

조 조와 함께 몇 일쯤 전  
의 제후들이 크게 군사들 거  
느리고 저 같이 온다는 소문  
을 들자, 물 탁은 소스까지  
저 놀라, 즉시 수하 장수를  
모아 놓고 일을 의논하였다.  
그때,

"승상께서는 아무 염려 마  
십시오."

라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다른 어가 아니라, 바로 어  
포다." 어 포는 창에 비칠  
사람이 없는 진하(冢下)의  
명정(名正)이다.

물 탁이, 어 포가 나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크게 기  
뻐할 때, 또 한 장수가 나  
기,

"무어 어 장군께서 몸소 나  
가실 것도 없습  
니다. 제가 가  
서 제후들의 머  
미를 모조리 비  
어오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를 탄다.

마따보니 화 술  
(化 帥)이란 사람이  
다. 그도 어 포  
는 못하나, 혁  
명 같은 장수  
물 탁은 막을  
문뜩히 생각하  
고에게 군사  
만 명을 주어,

나가서 제후들을 막게 하였  
다.

화 술은 물 사수관(記水關)  
으로 가서 제후들의 군사를  
맞아 싸웠다.

제후의 성봉(聖鋒)은 전사  
태수 손 집이다. 그는 용병  
이 놀라운 사람으로, 또 그  
의 수하에는 정 보(精保)·  
황 계(黃晷)와 같은 이름난  
장수들이 있었으나, 화 술을  
당하지 못하고 싸움에 패하  
였다.

제후들은 모두 함 곳에 모  
여 근심하기를 막지 않는다.

"우리 성봉이 화 술에게 패  
하여, 모든 군사들이 기운  
이 죽었으니, 이 노릇을  
장차 어떻게 하던 줄만 알  
오?"

그러나 모두한 한결 같이  
근심만 하고, 누구도 한 사  
람 시련할 소이문 하는 사람  
이 없은 때, 술사가 뛰어들  
어 오며,

"화 술이가 군사를 거느리  
고 와서, 수미에게 싸움을  
청합니다."

라고 보한다.

술 설(帥 涉)이란 장수가  
를 나갔다. 그러나 얼마 지  
나지 않아, 군사는 풀이 와  
서 보좌되, 술 설은 얼마 싸  
워 보지도 못하고 화 술의 손  
에 죽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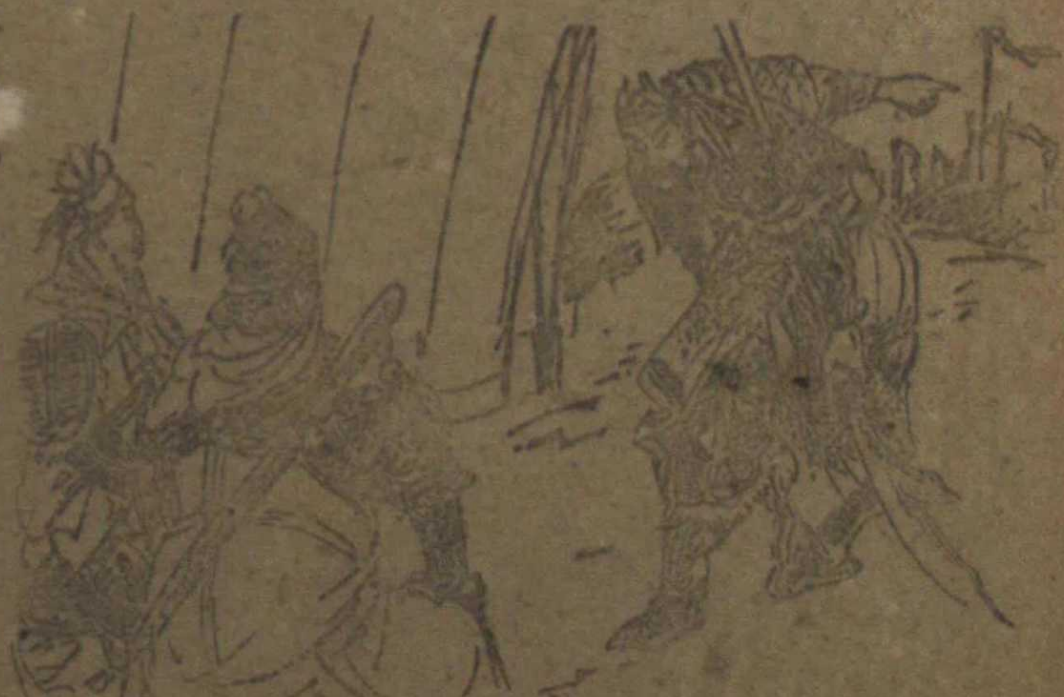
벌 풍(鵬 鳳)이란 장수가  
도 나갔다. 그러나, 그도 화  
술의 손에 죽었다.

모두들 놀라서 이제야 바  
를 모른 때, 문득 한 사람이  
나서며,

"제가 나가서 화 술의 머  
리를 내어다가 바치겠습니다  
!"

라고, 큰 소리로 댕댕다.

모든 사람이 눈을 풀이 보  
고, 그의 키는 구 척이요, 수  
영의 길이는 두 자가 넘고, 앞  
발은 무요익은 대수 빛이요,  
목소리는 큰 리복을 울리는



것 같다.

상자에 얹어 있던 발레 대수 원 초가 풀렸다.

“네가 저 사람이 누구요?”

그를 데리고 온 공손 찬이 대답한다.

“유 비의 아우 관 우요.”

“지금 무슨 벼슬에 있소?”

“아마 마궁수(馬弓手)라나 불려다.”

마궁수란 아주 낮은 벼슬이다.

그 말을 듣고, 남향 태수 원 술이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내가 우리 제후들에게 대강이 없다고 엄신했기느냐? 한낱 궁수 따위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려느냐?”

이때, 조 조는 황명히 손을 들어 멈추며,

“그다지 노여워 마시오. 저 사람이 큰 소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듣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것일 것이니, 한번 시험 삼아 내어 보내 봅시다그러.”

좋은 말로 타이른 다음에, 더운 술을 한 잔 가져 오라 하여, 관 우에게 주며 하였다.

그러나, 관 운장은,

“아직 그냥 두십시오. 제가 곧 다녀 오겠습니다.”

하고, 청룡도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가 나가자 마자, 밖에서 북 소리와 아우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모든 제후들이 마음에 놀타워, 군사를

내어 보내서 소식을 물으러 할 때, 말장발장 말 방울 소리가 울리며, 관 운장이 말이 외쳐 화웅의 머리를 방위에다 내어 던지니, 아까 따라 놓은 술이 아직 식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놀라기를 바치지 않았다.

### 五, 호로관(虎牢關) 싸움

화웅이 죽었다는 보도를 듣자, 동탁은 크게 놀라, 수하 장수를 급히 보내서 사수관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이포를 데리고 군사 십오만 명을 거느리며 호로관(虎牢關)으로 나갔다.

제후들은 봉락이 원히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절반은 남아서 사수관을 지키고, 절반은 호로관으로 향하였다.

관 앞에 이르러, 길을 치자

이포가 군사 십만 명을 거느리고 나오니, 적천화군(方天畫戟)을 손에 잡고, 적포마(赤兔馬) 휘며 눈이 밝은 모양이, 과연 철과 명장 의기에 부끄럼이 없다.

방현(方悅)이란 장수가 나갔으나, 오 함교까지 보지 못하고 이포 손에 죽었다.

문순(文順)이란 장수도 죽었다.

공안국(孔安國)이란 장수도 죽었다.

이러 제후들이 여러 화연 총을지를 모을 때, 이포가 보진 밤에 와서 싸움을 성한다.

이때,

“내가 나가리라!”

한마디 없치고 내달은 장수가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관장미다.

장미는 말을 제쳐 밤으로 나가자,



"이놈, 이 로야! 이 강 비  
를 아느냐?"

떡딱 깔아 조끼를 지르거  
장팔사로 곱아 잡고 바로 이  
로에게로 달려 갔었다.

두 장수는 한 봉안을 어울  
이겨 싸웠다. 그러나 오십  
합이 넘도록 승부가 나지 않  
는다.

이를 바라보며 관을 잘은  
정통도를 승주의 파파 나와,  
장 비와 힘을 합하여 이 로  
와 싸웠다. 그러기를 잠시  
이 합—, 그리고 승부는  
나지 않는다.

마침내는 수 현까지 나  
서서, 세 사람은 이 로 라나  
를 붙여 싸고 잡히었다.

이 로가 제 아무나 원하  
명장이라 하나, 빙 같은 장  
수 세 명을 원시에 맞아서 싸  
우는 편이다. 팔팔대 이 로  
티지 못하고, 마침내 달 이  
기를 붙여 달아났다.

세 장수가 총서 잡고 그  
위를 따르며, 또 여러 세후  
들이 군사를 휘둘러 그 로를  
잡히었다.

이 로는 크지 패하여 호로  
간으로 활이 가자, 전 문을  
닫지 않고, 다시 나오며 안  
다였다.

물 탁은 수라 장수들을 모  
아 놓고 일을 의논하였다.

한 사람이 나서서 말한  
다.

"이제 이 장군이 패하였으  
니, 여기 머물러 떠 싸우  
다는 것은 이모을지 못할  
일입니다. 곧 탁으로 물  
아 가서여, 힘을 모으고



장안(長安)으로 서울을 옮  
거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  
다."

물 탁은 그 말을 좇아 물  
군사를 거느리고 밤을 모아  
낙양으로 돌아 갔다.

### 六, 조토 (焦土) 된 낙양 (洛陽)

낙양으로 돌아 온 물 탁은  
관 영을 데려, 도읍 (都邑)을  
장안으로 옮길 편이니, 모두  
관 영장을 수습하며 영하였  
다.

신하나 덕성이다. 모두가  
그 영제는 반대다.

물 탁은 군사들을 시켜 제  
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게 하고, 그 로  
를 흔락 데었다.

승부짓는 소리에 성 안이  
그때도 떠나 잘못 하다.

물 탁은 모 상 안 모처에  
나 불을 걸었다. 남(南)·북  
(北)·두 대원과 민가가 모조  
로 타서, 그 변화하면 낙양  
이 하루 아침에 조토(焦土)

로 화하여 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물 탁은 인  
삼과 신하를 겁박하여 장안  
을 바라보 떠난 것이다……

물 탁이 떠난 뒤에는 제주  
들은 군사를 몰아 낙양으로  
들어 왔다.

그들이 본 낙양은 너무나  
처참하였다. 불꽃은 하늘을  
켜으며, 검은 연기는 땅을  
덮어, 이 삼백이 사이에 사  
람은 말도 말고, 닭 잔 마디  
개새끼 하나 구경을 못하겠  
다.

모든 세후들이 자기 더럽  
을 관라 영정(營壘)을 세우  
려 할 때, 또 로가 말하였다.

"여기에 머물러 치으면 무  
일 하오. 곧 물 탁의 뒤를  
좃읍시다."

그러나 모두를 알란다.

"군사들이 시켰으니, 지금  
또 좃아가 싸우는 것이 이  
로을지 않을 것 같소."

"그저 무슨 말씀이요? 이  
때를 두고 영정 다시 물 탁

이런 편하여 보겠단 말이  
오? 끝까지 찾아가 줘  
다."

그러나 보꾸를 듣지 않는  
나.

조 조는 분명히 싫어나,  
자기 혼자서 글자를 이관고  
동 타의 뒤를 찾아 갔다.

그러나 뜻은 비록 장하여  
도 힘이 부치는 것을 어이  
하랴? 그는 학양(學陽) 땅에  
서 이 포엣지 크자 데하여  
그때로 들어 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 조는 여러 제우들이 바  
음이 맞지 않고, 자기 만 뜻  
을 품기 때문에, 팔팔대 큰  
일을 피우지 못할 것을 알고  
수하, 글자를 거느리고 양주  
(楊州)로 떠나 버렸다.

조 조가 떠나는 것을 보고  
꿈은 찬과 유필도 글자를 추  
유하여 낙양을 떠나고, 다른  
제우들도 모두 저 갈대로 가  
버리고 말았다.

이리 하여, 모처럼 조 조  
가 인으런 이 큰 사업도 어  
려 제후의 뜻이 서로 맞지 않  
으므로 원하여 무지 많은 것  
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계속)

### ◆소학생 작품 모집◆

소학생 여러 분의 작품을 모  
집합니다. 작문·동요·삽화·  
도화·일기 등 무엇이든 많으  
나 많이 보내 주십시오. 잘  
된 것은 "소학생"에 내고 보  
실도 드립니다. 다감은 없으  
며, 작점 가치도 으쳐도 받고  
수첩으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소학생" 편집부

# 애독자 아첨 성리가

## 문 재 김승 찾기

말에 그림에는 김승이 꼭 다섯 마리 있는데, 다 각  
각 숨어 있기 때문에, 일본 말의 적이서 잡았어. 김  
승말을 찾아 내어 그 이름을 세자 보내서면 마르 맞추  
권 분에게 다음과 같은 상물을 보내 보내주세요.

상물·1 등—"그림 세기제"와 "소학생"서 원과 한  
권씩·1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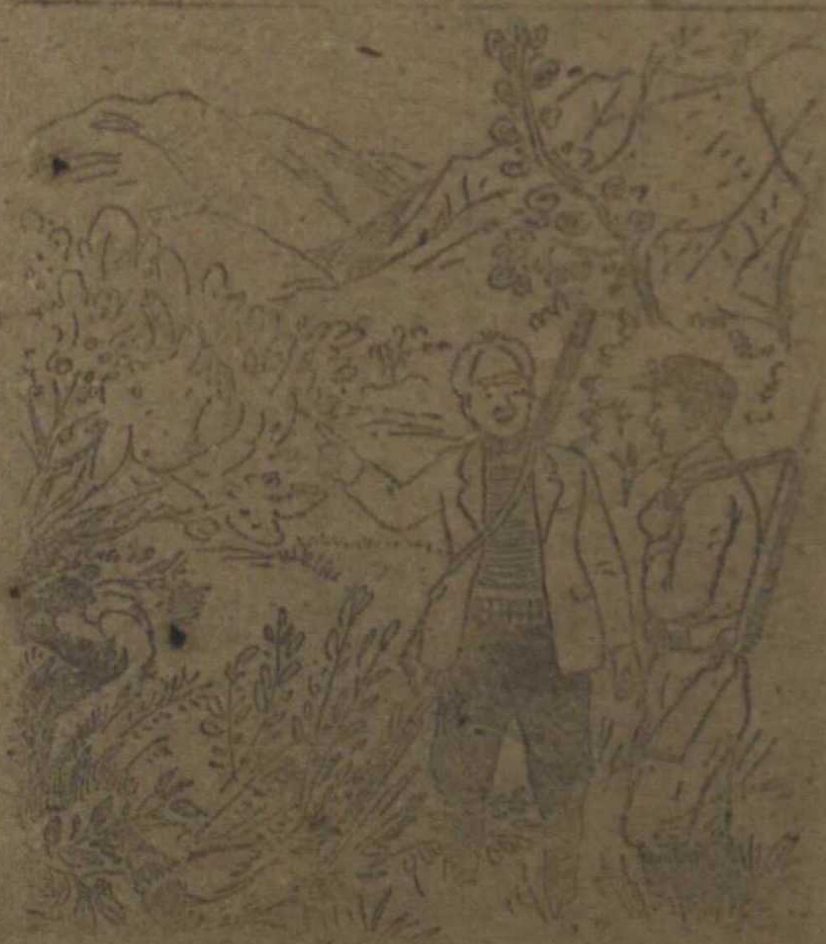
2 등—"그림 세기제" 한 권씩·30 원

미감·2원 20원

본내일 곳·서울 鍾路3街 永德빌딩

兒協 "소학생"編輯部

주의할 것·보내시는 분의 학교, 학년, 이름을 꼭꼭히 쓰고  
봉투 겹에는 "원상"이라고 쓰십시오. (일본 분어, 일본  
어에는 적비를 붙여 주십시오.)



# 동화

## 계와 원숭이



원숭이가 쥐는 꿀벌이 나무 줄기에서 내려와 꿀을 빨고 있는데 계가 날아와 꿀벌의 일사를 하고 나뭇 가지에 앉아서 기다렸다.

“두꺼비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먹이나 좀 만들어 먹지.” 하였습니.

계는 아 그거 참 좋은 말이 라고 배변 따라 나섰습니다.

계는 원숭이한테는 꿀이 나가 부엌에 먹은 꿀을 먹이다가 한은 꿀벌이 꿀을 빨았습니다. 계는 꿀을 데 놓고 오늘은 원숭이라고 먹은 꿀 담겨 먹어 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원숭이는 깨나.

“네가 아까 으리가 꿀을 드았는데 그 꿀을 가져다 가지 꿀을 팔라 줘.”

“음기 그네로 먹는 것 보다는 꿀을 팔라 먹으면 달고 더 맛나지. 자 그럼, 팔라 가서 꿀을 팔라 가지고 오게 응.” 계는 원숭이에게 꿀을 데 주었습니다. 원숭이는 “음기 수나 라고 꿀을 가지고 곳까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계가 가만히 보니 원숭이가 꿀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게 할까 쥐어 그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거기 나무 밑을 치고 오니까 원숭이가 꿀이 그 꿀을 가지고 “아이고 맛나, 아이고 맛나” 라면서 혼자만 먹고 있었습니다. 계는 그만 꿀이 볼루 나기 그러므로 조금

주머니 하고 꿀을 따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 오고 있는데 원숭이는 혼자만서 하고서 혼자만 “아아 맛나, 아이 맛나” 라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계는 더욱 꿀이 볼루 나기,

“이승 배워서야만 리 봐야요 달고 더 뜨겁게 줄다.” 라고 잔뜩 치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희기라함이 들어 와서 원숭이가 달아나기 하고 있던 때 땅에서가 꼭 떨어졌습니다.

계는 “이제 뭘 병이냐” 라면서 일론 그 때 성어미를 힘겨 가지고 정글정글 제 힘으로 풀어가 버렸습니다. 원숭이는 “한참 달고 먹면 비은 그만 그 할까운 희기라함 때문에 땀만 땀을 생각하면 눈까지 먹이 없었지만 바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 이  
부동이 “어머니, 여기에서 벌레가

원숭이는 그러므로 계한테 가서 사정하고 꿀이 나눠 먹고 할까운 어슬렁 어슬렁 달로 찾아 갔습니다.

계는 꿀을 가지고 가서 시장 한참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어고지 아만 내 잘못했네, 아자 일은 생각 말고 나하고 같이 나눠 먹지. 꿀이 나눠 만든 것 자체 혼자 먹는단 말인가. 역시 어찌 좀 내 보내라.”

그러나 계는 꿀은 적도 아니하고 혼자만 먹으므로 원숭이도 꿀이 없으나 쥐나 꿀은 꿀이다 원숭이는 꿀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라 요즘 맛있게 먹는데 말려나 놓자”

라고 원숭이는 엉덩이를 “음 배고 먹고 파구를 퐁 퐁 퐁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고 “음기, 요즘을 좀 물어 주어야겠다”고 계는 날카로운 말로 원숭이 엉덩이를 밟다 뜨겁었습니다. 원숭이는 계가 뜨겁게 따위에 따위 놀다 밟다 달아나는 데 엉덩이 떨어 버지 되었습니다.

가장도 원숭이 엉덩이가 떨어진 것은 그 때 계가 뜨겁게 밟아 나간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계한테 떨어 받은 것은 그 때 원숭이 엉덩이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끝)

가 정정어요.”  
어머니 “뭘?”  
부동이 “어가 두 개나 있어요.”  
어머니 “알이 잘아.”  
부동이 “입 속에 있는 이 말어요.”  
어머니 “그럼 입 속에 있는 이라고 말을 해야 알지.” (서울 정문 포수관 장만)

# 어린이 새소식

## • 싸개지가 될 번한

### 국보·이조실록(李朝實錄)

우리 나라의 귀중한 국보의 하나인 이조실록(李朝實錄)의 원본을 모난 당한 사실이 있어, 작제의 석자들에게 큰 증거를 주고 있다. 즉 구왕궁(舊王宮)에서는 지금까지 이조실록의 원본과, 그 경인본(景印本)을 합법적 창덕궁장서각(昌德宮 藏書閣)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 12월 30일 오전에 궁내를 불타 다니며 감시하고 있던 한 제원에 의하여 원본 대부분이 분실된 것이 발견되어 작지 장서각을 전부 조사해본 결과, 850여 권 중에서 약 700여 권과, 한국 시대부터 지금까지에 이르기까지의 판본 그 외에 더 가지 서류를 모난 당한 것이 판명되었다. 31일에 소관 창덕궁경찰서에서는 그 범인을 수사하던 중, 범인 3명 중 2명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뒷담 무너진 곳으로 들어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찍어 갔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조실록의 귀중한 국보적 가치에, 탐이 나서 훔쳐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갔다가 파지도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분실된 원본의 대부분은 당국의 민첩한 관동으로 도로 찾은 것도 있으나, 일부는 이미 파지도 사용된 주라 찾을 가망이 없을 모양이며, 시내 어느 제지 회사에서도 그 일부를 압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조실록은 원본이 세 벌이나 있어서, 조일 합방 전, 광화(江華), 봉화(奉化), 무주(茂朱) 등 세 군데에 보관되어 있던 중, 합방 후에 일본 권역원이 모두 서울로 가져다가 하나는 일본 불경에 갔다 두었었는데, 그후 동경(東京 震旦)에 띠어졌으며, 남은 셋 중 둘은 현재 서울 대학에 있으며, 나머지 한벌이 이번에 모난 당한 것이라고 한다.

### 암산으로 세계 제일 전기 계산기도 당할 수 없다

우리 조전에 암산왕이 나타났다. 지난 12월 2, 3, 4 일의 3일 동안에 걸쳐서, 익균 제 24군단 주파부(원 부원관)에서, 주관 장봉거로 조선에서 제일 유명한 일꾼 사람의 주관 선수와, 또 그 정일라고 칭하기를 자랑하는 익균 제 전기 계산기와, 한편으로 자랑하는 암산법을 연구한 백성진씨의 일백 정쟁이 벌어졌었는데 어느 것도 나 이 백 세의 암산법에 따를 것이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이 백 세의 천재적인 계주 앞에서 도저히 굴복하고 밀렸으니 이 한글을 연구하여 그것으로 암산할 수 있는 계산법을 만들면 것은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이야기는 글자에 결과를 하고 전 세계에 알려졌 것이다. 주파의 어학자가 그 하나 암산쟁이다. 그런데 백 세의 계주 전 31 세의 젊은 청년으로 약 12년 전부터 한글을 이송하기 개발하는 암산법을 연구하는 것이며 지금은 백 세와 천재로 승제법(乘除法)을 연구 중이었는데, 백 세는 이걸을 세계에 자랑 하므로 세계를 한 바퀴 돌아 다니고 있다고 한다.

### 현명한 불조 영기의 영터리

지금 일본 동경에서는 세계의 평화를 성립코 할 것을 주요인 일본의 군벌(軍閥)에 의한 계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12월 20일까지는 원정 범의까지 계속되고 영기(東條 英機)에 대한 심문이 시작되었다. 영기 부부였던 큰 범인으로부터 적오의 선비 구술서(空書 口述書)가 낭독되었는데, 그 구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확실히 나타나 있다고 한다. 즉,

"대정암 전쟁 계획는 어디까지든지 평화의 싸움이었고, 싸움을 시작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피부 수감으로 한 것이다. 만주사변(滿洲事變), 일화사변(日華事變),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 등 각 전쟁을 필약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정찰관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고 한다. 이 말이나 전한스므로 어디서는 수감이다. 그 구술서와 230 페이지에 달하는 길마한 정본이라고 하니, 그 속에는 어떤 의미한 판본이 있을 줄이 있었을까? 흥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사람이 사느니 안 사느니 알성 많은 "화성"

그중에서는 오죽을 또 화성(火城)에는 사람이나 짐승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가 알성이 되고 있다. 즉 적들은 우리는 화성에도 짐승( 짐승 )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여 왔는데, 이번에 미국 과학 진흥 협회에 들어 온 보고서에 의하면 화성 표면에 화성바다(冥海冥湖)가 있는 것이 발견 되었으니 화성이 어떤 종류의 생물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식각도역학 카를리 박사와 리아비-크리히 일본학 교수 일본 박사는, 화성의 짐승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추측이고, 실제로 화성에도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 것의 개척자를 좀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화성학에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생물이 살고 있다면, 참 흥미 있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누나들의 다독한 말씨

서울 신남동에 있는 제9교를 이학교 4학년 2반 학생 임종은, 수희와 영호 등 3명과 원희는 제1교 동교동에, 처음 이 문이나마 우리들의 그러한 정성이니 원희 주길사하고, 원희 정수(任貞敏)양이 대표로 지난 23일 서울 신문사에, 원금 500원을 모아 가지고 왔다는 이름은 소식이 올랐다.



○작년 11월 "아침"에서 그림 책 제8권 원희 정수 정수이 그린 시동인 프랑스는 연 만

## "노래 동무회"가 생겼다

좋은 노래를 가르치고 때때로 방송도

지난 주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뛰노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자 못하는 형편을 인하여 알게 생각하신 이 신경림이 모이시어 이번에 "노래 동무회"를 발족했다. 새로 지은 노래를 새로 작곡 해서 매주 일요일 오후 한 시 부 어 가 르 고 있 는 데, 지금 대 우 고 있 는 학 생 은 서울 시 내 자 각 의 학 교 4, 5 학 년 에 서 음 양 의 조 리 가 있 는 이 학 생 약 20 명 가 가 르 고 하 여, 모이는 곳 은 시 내 영 등 동 4 가 500 의 8 로 울 석 중 신 경 림 의 이 라 고 합 다.

그리고 이 "노래 동무회"를 지도하시는 신경림은 소재 와 연 광 사 ( 作 詞 ) 에 울 석 중 신 경 림, 작 곡 에 는 울 석 중 신 경 림, 김 순 철 ( 鄒 淳 賢 ), 우 신 경 림, 지 도 ( 指 導 ) 에 는 서울 사 범 대 학 부 속 장 학 교 한 일 현 ( 韓 寅 鉉 ) 신 경 림, 그리고 반 주 ( 伴 奏 ) 에 는 서울 장 경 국 민 학 교 김 철 ( 金 鎭 ) 신 경 림 이 라 고 하 는 데, 가 르 고 있 는 이 러 한 출 몰 한 노 래 가 나 오 게 될 지 모 든 것 에 대 하 여, 앞 으로 미 리 오 를 준 비 하 여 서 발 송 도 하 미 라 고 합 다.

### 백설의 함라산을 점책하다

### 무참히도 희생한 전택 선생

중대나이에 되는데 혼자 본보와 떨어져 있는 운중 과 강철 도 에 있 는 백 설 의 함 라 산 을 점 책 하 는 데 이 러 한 중 은 조 우 라 이 학 술 적 으로 모 든 공 을 사 학 ( 叢 山 科 學 ) 에 참 고 있 는 도 움 을 한 조 성 산 악 회 ( 朝鮮 山 岳 會 ) 에 서 는 이 번 에 도 다 시 에 는 에 와 물 린 계 우 로 함 라 산 ( 橫 原 山 - 1915m ) 을 장 부 ( 長 嶺 ) 라 고 기 상 지 진 ( 經 線 地 質 ), 선 원 ( 線 源 ) 중, 어 리 장 면 에 있 어 서 파 악 적 으로 대 부 의 보 고 고 지 나

간 1월 6일 봉기 등 산 ( 冬 冬 山 隱 ) 을 보 내 었다. 지 기 의 관 자 라 김 분 은 오후 5 시 경 에 9 일 제 우 로 대 성 복 하 여 12 일 출 애 물 이 가 기 시 작 하 였 으나 날 마다 위 지 높 고 계 속 되는 무 서 은 수 이 와 함 한 은 모 든 대 문 에 일 병 은 함 이 함 시 기 달 리 기 운 이 지 지 고 물 이 의 약 의 저 서 노 성 하 던 중 16 일 밤 9 시 경 에 반 장 전 택 ( 田 錫 ) 의 는 분 리 이 도 백 설 이 달 린 함 라 산 중 의 달 라 곡 ( 戛 關 谷 ) 속 에 서 진 을 잃 어 마 침 에 세 상 을 여 나 였 다. 그리고 남은 대 분 은 17 일 자 각 중 상 ( 頂 上 ), 죽 은 경 상 ( 經 上 ) 을 일 제 러 고 제 우 로 도 림 방 원 에 서 지 도 를 따 고 있 는 데, 그 중 두 분 은 생 명이 위 족 하 라 고 합 다.

사흘만에 다 릴 려 비 웠 고, 세 터 에 말 정 관 선 생 중 화 집 "기 머 은 김 오 리" 로 음 계 나 가 고 지 금 일 마 날 지 않 았 습 니다. 그리고 저 금 조 중 원 선 생 의 중 화 집 "황 자 의 부 하 물" 은 일 제 하 는 중 원 의 이 것 도 많 이 다 지 못 하 는 형 편 이 므로 우 학 나 란 것 으로 필 자

합니다. ○"소년 삼 국 지" 에 그 림 을 그 려 주 시 는 삼 기 창 선 생 은 이 순 실 장 군 의 조 상 과 음 물 을 모 사 ( 模 寫 ) 라 시 기 위 디 기, 충 남 야 산 ( 牙 山 ) 에 어 제 라 셨 다 가 며 칠 린 데 물 이 오 셨 습 니다.

# 소학생 3주각부

소학가지 말씀 드미였는데 저희 집은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 주소는 서대문로 2가 149번지입니다. 지금은 돈암동에 새로 살던 집에 피하던 아주 온과 같습니다. 학교가 좀 멀어졌지요. 날씨가 추워져 학교 가기는 어려우나 가이만 하면 공부하기는 재미나고 좋습니다. 한데 없는 말문을 드러서 백만히 지송합니다. (서울 수송 국민교 6년 김술기)

소어린이의 흥분이 참 이미 선경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보낸 풍요는 친절히 받들어 주시고, 그리고 "소학생"에 실려 주셨으며 짙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작품을 보냈으나 많은 격려가 있으거기를 바랍니다. (수원읍 백판동 3가 20 홍희준)

△보내신 작품을 받았습니디. 확실히는 지면 관계로 실리지 못했습니다. 자꾸자꾸 많이 보내 주십시오. (기자)

소친집사에 제신 처의 선생님 겸안하십니까? 저희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도 화육하여, 날마다 열심히 공부와 운동을 하여, 씩씩하고 슬기로운 몸과 마음을 기르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으로 여러 선생님들의 절강을 받겠습니다. (배원 대송교 6년 영자)

△아무췌든 공부를 잘 하여 장래 훌륭한 조선의 유우회 구성이 되어 주십시오. (기자)

△아름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소학생"은 말마다 받아보고 있으나, 아직 작품을 같은 것은 한번도 보낸 적

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학년생의 풍요를 보냈자요, 그 우수적만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의 경유를 빌려, 우리의 소학생을 위하여 더욱 활약하시 주시기를 바라며 소는은 이번 선택하겠습니다. (경북 함산 국민교 5년 재표 이용식)  
△"소학생"을 길러 주시는 여러 선생님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지난 9월지 "학원 장라기"에 송으하여 실려되었는데, 발표할 통해 이름과 주소와 칭은 같으나 이름이 틀릴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을 현철 (현철) 이을 종원 이라고 잘못 보실 듯 합니다. 11월지에 이성과 같이 발표되었으나 풍요로 아직 오지 않으니 송과하여 학원 조차하시 말며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남산동 818리정오 송영철)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송들은 "물러가 쉬운 힘"과 "보민은크루스" 자 한 필적을 작년 12월 16일 부도 보내 드렸는데, 그동안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아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를 위하여 늘 배려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아름의 선생님들, 이제 사랑해 주십시오. 늘 잘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혜택을 받고 있는 절정기입니다. 나라 사람이 만우절일지 좀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서울 방송교 6년 기자)

△그것은 서기 1843년에 민소 오우스라는 이그 대타의 죽이 성명이 발명했습니다. (기자)

## "소학생"

— 4월 4일 4주각부 —

★소학생 사대매 사지는 문은  
① 학교에서 단적으로 구분하십시오.

② 개인으로 사 보시려면 출판에 있는 책사 문장각(文庫閣)이나 그 밖에 큰 책사에 가지면 됩니다.

★소학생에 관한 물음

① 학교에서 단적으로 구분하십시오. 나문출판사(乙酉文化社)의 소학생을 사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② 직접으로 구분하실 때에는 책값 50 원과 송료 7 원은 가려운 수권적으로 가지고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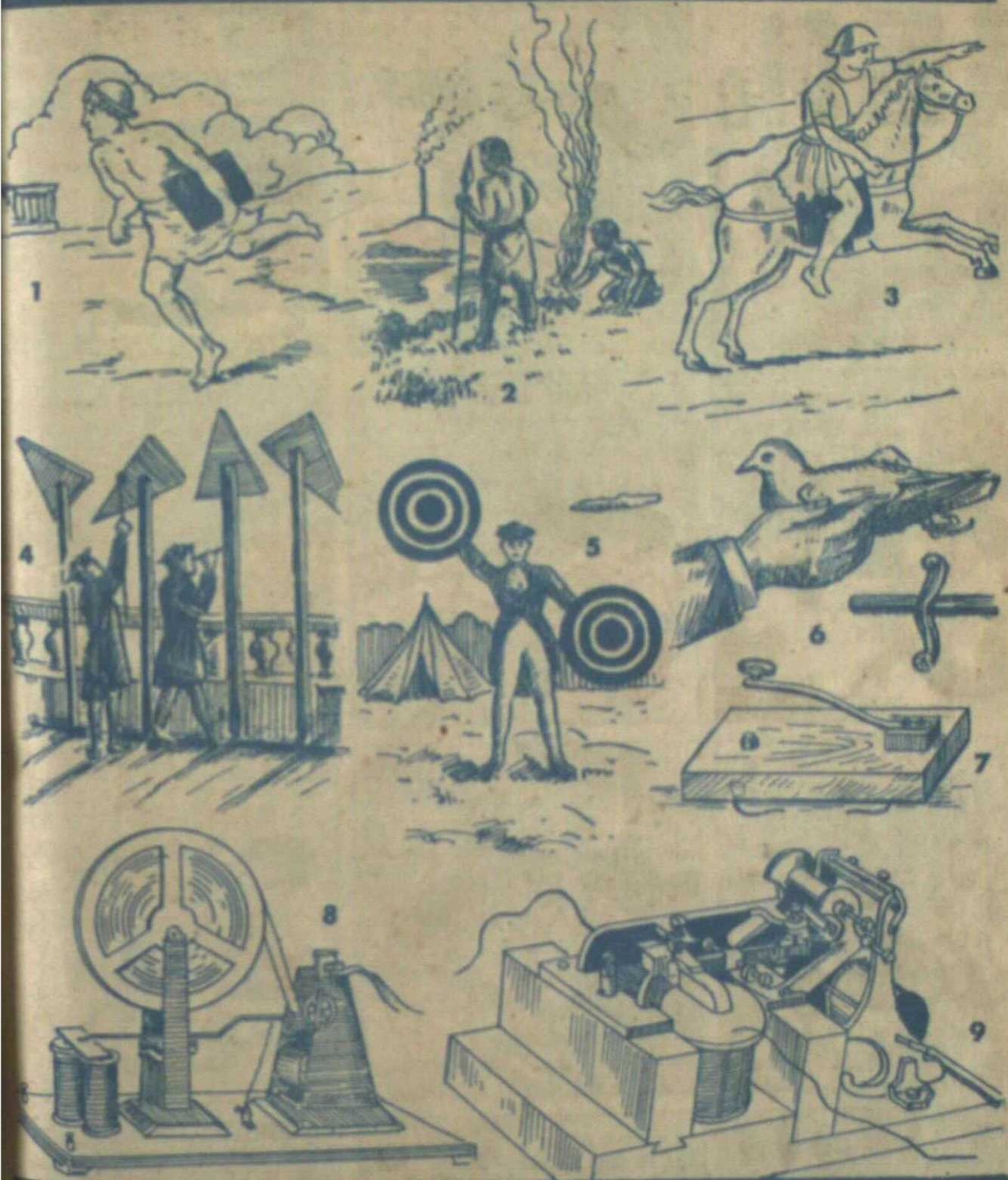
③ 보내실 문은 "서울 2동 2가 20번지 5층 乙酉文化社"입니다.

④ 여러 달지 몇 달을 여러 보내시면 더욱 좋습니다.

⑤ 수권권에 가지시 출판문화 집적자금 주의 京城-2500으로 보내셔도 좋으나 날마다 좀 오려 걸립니다.

1948년 4월 1일 발행  
소학생 · 값 60 원  
2월지 ★ 제 54호

發行人 尹石重  
編輯人 尹石重  
發行所 兒童部  
서울 2동 2가 20번지  
電話 (31) 29702, 30722  
總發賣 乙酉文化社  
發行 312 295149  
小賣店 ★ 文庫閣 ★ 2동 2가  
協進印刷公司 印刷



### 통신의 내력

① 먼 옛날에는 사람들이 목소리  
 해서 통신 방법을 하였다. ② 그  
 때 서로 자기들이 있는 곳을 알  
 려기 위하여 높은 산 꼭대기에서  
 불도 피웠고, ③ 로마 시 때에는  
 말도 언마도 하였다. ④ 그 뒤 공



발명되어 배 거품에 세모진 널쪽  
 을 깎아 이리저리 움직이게 해서  
 언뜻사람과 언마했으며, ⑤ 18세기  
 초부터는 풍군 풍순 손의 불교신

호를 땀는데, 아마 이것이 지금  
 수기 신호의 시초일 것이다. ⑥ 더  
 음에는 귀여운 비둘기를 통신에  
 사용할 줄도 알았다. ⑦ 1843년에  
 미국인 몰스가 비모조 통신기와  
 ⑧ 수신기를 발명했다. ⑨ 이것은  
 처음으로 원할수록 발치워 간 문  
 실의 성공한 "몰스통신기."

# 목동이 3

## 이영준 그림

오빠, 오빠  
저기 불이  
났어요.

2 이거 큰일 났다.  
가서 끄자. 뭐  
질어냐?

반 더 집누  
리 뒤게요

3 앞 또 불이  
났군.

불이  
붙어

4 저런! 연기가  
튀장 하구나.

놓으면 큰일이다  
빨리 가자 빨리.

5 어떻게 해서 불  
이 꺼질까? 음.

빨리 물을 따  
오세요.

6 앗! 이거 참  
뵈락이야!

7 아이 차거워.  
어떤 놀이야.

8 막물이름들이  
불 감난을 했구나.

9 그 불을 따  
문에 헐수고  
했구나.

그만하니 다  
다 화가려면

10 전진 또 댜 연기  
야? 마주머지  
덕에서.....

11 이 일을 어찌면 좋  
아. 감박 잊었구나.

12 조금만 늦어도 큰  
일 날뵈 뵈었습니다.

간때 발이  
붙어 뵈었어